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학위논문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안내사, 가이드, 중국관광객 간의
갈등과 타협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이 혼 이

인류학석사학위논문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안내사, 가이드, 중국관광객 간의
갈등과 타협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이 혼 이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안내사, 가이드, 중국관광객 간의
갈등과 타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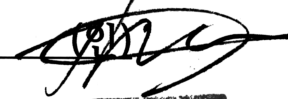
지도교수 강 정 원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이 혼 이

이혼이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_____ 권 속 인 

부위원장 _____ 강 정 원 

위 원 _____ 이 현 정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박물관 관광에서 등장하는 외국인으로서 중국관광객과 여행사가이드, 박물관 안내사가 전시를 둘러싸고 부딪치는 이해 방식 및 해설과정에서의 타협 현상에 주목한다. 연구자가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행위주체가 각각 전시를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불거지는 갈등과 분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둘째,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하는 과정은 어떠한고 이 과정에서 중국관광객에게 진정성은 어떻게 경험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을 하나의 접촉지대로 본다. 가이드와 안내사를 비롯한 문화중개자는 이 접촉지대 안에서 공존하는 행위주체로, 단순히 중국관광객의 비위를 맞추는 ‘창조자’나 타협 불가능한 전시 대변자가 아니다. 이들은 중국관광객과 평등한 권력 하에 서로 체화된 지식으로 접촉하고 지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는다. 문화중개자는 서로 간, 그리고 관광객과의 갈등을 염두에 두어 새로운 전략으로 세 행위주체의 타협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문화중개자의 전략 하에 중국관광객은 자신의 연상과 경험을 경해서 진정성을 경험한다.

본 연구는 경복궁 옆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등장하는 여행사가이드, 중국어 전담 안내사와 중국관광객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현대대중관광에서 유적지와 연동하여 박물관은 이미 불가피한 관광대상이 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자신의 발전역사와 지리요인 등으로 경복궁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점차 중국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의장이 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생활사”, “한국인의 일상”, 그리고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3개의 실내상설 전시가 완비되어 있다. 그렇지만 관광 행위주체들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경복궁과 기타 관광지의 연결고리이자 “시간 때우는 곳”이라는 관점이 앞선다.

문화중개자와 중국관광객은 해설과정에서 서로 체화된 역사문화의식의 차

이에 따라 갈등을 초래한다. 중국관광객은 안내사가 추구하는 ‘정확한 지식’을 부인한다. 여행사 가이드는 중국관광객과 안내사의 입장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중국관광객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가이드는 해설과정에서 안내사를 비롯한 한국의 공식적인 역사관과 중국관광객의 사고를 모두 고려해 최대한 무난하게 해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안내사는 역사적 사실, 세계사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과 객관적 자료에 의한 내용을 더욱 강조한다. 이는 중국관광객의 생각과 부딪치고 갈등과 충돌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관광객의 비교와 질문이라는 관광행위도 박물관에서 충돌을 빚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 두 요인은 대부분 유물 중심의 1, 2 전시실에서 드러난다. 즉, 이는 유물과 문서 등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식에 관한 갈등이다. 더불어 여기서 갈등의 상대방은 문화중개자와 중국관광객이 아니라 안내사 대 ‘가이드와 중국관광객’의 구도이다.

문화중개자는 서로 간 갈등 및 중국관광객과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 제3 전시실 중심의 해설방식을 시도한다. 제1, 2 전시실의 유물 중심의 전시에 비해 제3 전시실의 맥락적 전시가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문화중개자 사이에 서로 상이하지만 상충되지 않는 스토리텔링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3 전시실 중심의 해설은 역사의 상대적 부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국가 및 사회보다 가벼운 개인에 관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문화중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족 가이드는 자신의 ‘한국인’으로서 인생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안내사는 전시내용에 주목하여 객관성과 차이점을 부각한다. 문화중개자가 의미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전략은 중국관광객에게 익숙한 이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삶 속에 유가사상이 스며있음을 제3 전시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중국관광객에게 전달된다. 이는 중국관광객이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중국의 전통문화를 재고찰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한다. 동시에 제3 전시실에서 그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한류 콘텐츠의 진정성 또한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중국관광객은 제3 전시실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해 기대를 투사하고 과거

를 연상함으로써 진정성을 경험한다. 동시에 세 행위주체는 제3전시실에서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접촉지대를 단지 전시자와 피전시자 간 권력 불균형 문제로 다루지 않고, 박물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행위주체가 평등한 권력 아래 상호 작용하는 양상을 조명한다. 이러한 접촉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타협은 향후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중국관광객이 문화중개자와 상호작용에서 얻는 진정성 경험은 이전의 관광인류학자가 구분하듯 단순히 하나의 진정성 분류에만 따르지 않고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관광 연구에서 진정성 분류의 의의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제기한다.

주요어: 박물관 관광, 접촉지대, 문화중개자, 중국관광객, 진정성, 갈등, 타협

학번: 2014-25124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4
1) 박물관의 문화재현과 접촉지대	4
2) 진정성과 문화중개자	7
3.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9
II. 관광의 장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14
1. 유적지 옆 박물관	14
1)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와 공간 구성	14
2) 국립민속박물관과 경복궁	22
3) “시간 때우는 곳”	26
2. 관광의 장을 구성하는 행위주체들	28
1) 한국관광시장의 중국어 가이드	28
(1) 중국어 가이드 집단의 변화	29
(2) 가이드 간 해설 전수와 자기 이해	31
2) 궁·박물관 중국어 전달 안내사	34
(1) 안내사의 등장배경 및 운영체제	34
(2) 안내사의 업무 및 해설 학습	36
3) 몰려오는 중국관광객	37
(1) 중국인의 한국관광	37
(2) 중국관광객의 박물관 투어	39
III. ‘우리’와 ‘그들’의 상호작용과 갈등	42

1. 문화중개자 간의 공존 및 갈등	42
1) 해설 부탁과 해설 참고	42
2) 문화중개자 간의 갈등	45
2. 문화중개자와 중국관광객의 상호작용	47
1) 역사문화의식 차이로 인한 상충	47
2) 관광 행위로 인한 갈등	57
 IV. 문화중개자의 전략과 세 행위주체의 타협	63
1. “한국인의 일생”관이 열어준 갈등 해소의 가능성	63
1) 문화중개자 사이의 타협	63
2) 라이프 그룹(life group)-맥락적 전시의 중요성	66
2. 상이하지만 상충되지 않는 ‘의미’의 구축	68
1) 문화중개자의 상이한 스토리텔링 전략	69
(1) ‘진정한 한국인’의 경험으로서 스토리텔링	69
(2) 객관성과 차이점을 강조한 스토리텔링	73
2) 유가사상을 둘러싼 의미 구성	80
3. 중국관광객의 타협 및 진정성 경험	85
1) 한류 콘텐츠 진정성의 확인	85
2)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88
 V. 결 론	92
 참고문헌	96
 Abstract	103
中文摘要	107

표 목차

[표 II-1] 경복궁 방문 후 민속박물관 방문	26
[표 II-2] 무자격 관광가이드 언론보도현황	35

그림 목차

[그림 II-1]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실내 구조도	14
[그림 II-2] 제2전시실 앞 장승	16
[그림 II-3] 여름파트 도입부 사진	16
[그림 II-4] 신방	19
[그림 II-5] 돌잔치	19
[그림 II-6] 삼강오륜	19
[그림 II-7] 서당 내부	19
[그림 II-8] 성인례 부분	20
[그림 II-9] 출세 부분 전경	20
[그림 II-10] 풍류에서 전시된 여러 악기	21
[그림 II-11] 쌍륙을 노는 커플	21
[그림 II-12] 약방	21
[그림 II-13] 굿청	21
[그림 II-14] 상여	22
[그림 II-15] 국립민속박물관 안내도	24
[그림 II-16] 박물관 정문 십터	27
[그림 II-17] 제1전시실에서 쉬고 있는 관광객	27
[그림 III-1] 만력 연호 문서	50
[그림 III-2] 강희 연호 문서	50
[그림 III-3] “최초의 국가, 고조선”	53

[그림 Ⅲ-4] 제1전시실 한글창조 부분	55
[그림 IV-1] 제3전시실 앞에서 물리는 중국단체관광객	64
[그림 IV-2] 혼례 장면	75
[그림 IV-3] 나무 기리기	78
[그림 IV-4] 친영 장면	78
[그림 IV-5] 제사상	83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학전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일러두기

- 국립민속박물관 중국어 전담 안내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최소로 담았다. 필드일지 및 면담 사례를 인용할 때 가명 대신 알파벳을 이용한 가명을 사용하였다. 알파벳으로 처리된 가명은 사례마다 무작위로 부여하였다. 면담자 정보를 기재할 때 나이와 근무연수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 여행사 가이드 및 중국관광객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 본 연구의 인용자료 중 심층면담 자료가 아닌 경우는 모두 저자가 필기하거나 기억하는 대로 보완한 것이다. 피면담자의 모국어에 따라 면담이 중국어로 이루어진 경우,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었고 이를 이탤릭체로 명시하였다.
- 연구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인용할 때, 문맥, 어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발화자의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시를 하였다. 인용문의 강조는 연구자가 인용하는 목적의 핵심적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인용부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연구자의 부연 설명

[...] 연구자의 생략

[***] 청해가 불가능하여 누락된 소리

... 말 흐름

- 음의 연장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940만 중국 수험생들이여, 생애 첫 해외여행은 한국으로!”라는 제목으로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미래의 핵심적 소비자인 10대와 20대를 유치하려는 보도가 나왔다.¹⁾ 이처럼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찾아오는 열정도 갈수록 거세졌다. 최근 10여 년 동안 방한 중국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그전에 독보적인 관광객 수를 차지했던 일본을 넘어서 중국관광객 수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위를 차지했다.²⁾ 중국관광객에게 국제관광은 더 이상 지식인이나 부유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일반인, 혹은 학생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복궁은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한국관광코스로서 2014년 기준으로 93.8%가 경복궁을 관광코스에 포함시켰다.³⁾ 또한 한국에 방문하는 목적은 자연관광보다 문화관광에 더 집중돼 있는 추세이다. 문화관광의 정의는 명확히 결론이 난 것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적 유산이나 민족적·지역적 행사, 혹은 전통예술 등을 찾고 감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권숙인 2003: 5).

박물관은 인간이 문화, 역사, 자연과 지리에 대해 이해하는 결과를 저장하는 곳이다(Graburn 1977). 그것의 역사와 기능은 모두 관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Graburn 1982). 강정원은 한국의 박물관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미술이나 고고학에 기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구

1) 한국관광공사, 2016.06.08., “940만 중국 수험생들이여, 생애 첫 해외여행은 한국으로”,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news/press/board/view.kto?id=426710&isNotice=false&instanceId=42&rnum=15>>, 최종접속일 2016.08.09.

2)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2015.02.25., “1984-2015년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23699&isNotice=true&instanceId=294&rnum=0>>, 최종접속일 2016.08.09.

3) 조선사회, 2014.02.24.,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는 경복궁, 일본인은 창덕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4/2014022400100.html>, 최종접속일 2016.08.09.

성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강정원 2006: 5-6). 즉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하는 민속박물관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생활방식 및 가치체계를 유물과 재현물로 담고 있으므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속과 관련된 정기적인 공연, 행사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실제로 민속박물관에 방문하는 중국관광객 수가 다른 박물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속박물관에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 공간 안에서 전시된 내용을 관광객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덩컨(Duncan)은 박물관을 신전(temple)과 포럼(forum)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박물관이 교회처럼 간주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교육과 교류에 의미를 두어 학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Duncan 1971: 17). 신전의 역할을 했을 때 박물관에서 문화재현의 모든 권력은 큐레이터가 쥐고 있었던 데 반해, 포럼의 역할을 하는 지금의 박물관에서는 더 많은 행위주체⁴⁾가 박물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행위주체 중 박물관 안내사와 가이드 등은 국내 및 외국관광객에게 자국 혹은 현지의 문화를 전달한다. 이들은 문화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박물관 재현의 의미를 관람객에게 이차적으로 해설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박물관은 점차 역사와 유산에 관한 진정성(authenticity) 분쟁, 계층 간 대립, 그리고 민족 및 민족주의자의 가치와 소유권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등이 일어나는 씨름판이 되었다(Graburn 2009: 309).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박물관 관광에서 핵심적인 행위주체로 생각하여 문화중개자(culture broker)⁵⁾라는 개념을 적용하

4) 본 논문에서 관광의 여러 사람들을 지칭하는 공통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행위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행위주체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광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관광현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

5) 문화중개자의 개념은 1950년대에 사회인류학 연구들에서 시작하였다. 이때 문화중개자는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이나 공동체와 국가 측면에서 주변인(marginal man) 혹은 혁신가(innovator)를 의미하였다. 주변성과 변이성(deviation)을 고려할 때 뉴콤(Newcomb)은 문화중개자가 양쪽 문화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월프(Wolf)는 문화중개자가 공동체와 국가 측면을 대표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문화중개자의 행위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인 기회가 창출될 수 있고, 집단 간 우정과 연맹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ress 1969: 206).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고자 한다. 문화중개자는 주로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따라 두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이를 움직이며 지내는 기회를 지닌 사람이다(Smith 1989).

본 논문은 박물관 관광에서 문화중개자와 관광객 사이에 어떤 관계가 구성되며, 각각 어떠한 진정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민속박물관에서 중국관광객이 박물관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중개자를 통해 어떠한 진정성을 얻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관광연구에서 진정성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예술품, 축제, 의례, 복장 등과 같은 관광매력물(tourism attraction)⁶⁾이 전통적 문화와 기원을 담고 있는지, 관광객이 진위를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매력물 자체보다는 관광 행위주체의 활동 및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진정성과 관련된 갈등, 분쟁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물관은 국가와 민족을 상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정미영 2011: 91) 하나의 접촉지대(contact zone)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행위주체가 전시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역사문화의식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본 논문은 접촉지대로서 박물관 내 문화중개자의 해설과정을 통해 관광객과의 갈등 및 타협 과정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접촉지대에서 문화중개자들과 중국관광객이 각각 어떠한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빚었는가?

둘째, 접촉지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타협되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각 행위주체의 진정성 추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한국인류학계에서 오랫동안 관심이 부족했다. 한국의 박물관은 서구 박물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박물관 안내사와 가이드의 활동에서는 문화적인 측면도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측면도 존재하기에 이들에게 문화중개자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6) 관광지의 주요 속성은 관광자원의 매력성이고 이 매력성이 바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에 유익하다(정익준 1998:72).

만, 한국 사회의 맥락과 맞물려 서구와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왔다. 특히 국제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박물관은 현지인에게만 중요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외국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박물관을 관광의 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박물관 내 문화중개자와 관광객 간 전시에 관련된 갈등 및 타협을 분석하며, 박물관 내부를 연구하는 민족지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박물관의 문화재현과 접촉지대

전시의 구성과 유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박물관 연구는, 1988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렸던 “Exhibiting culture” 대회를 계기로 재현과 문화의 사회적 구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Feldman 1999: 59). 카프(Karp)에 의하면, 전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큐레이터의 견해, 물건 제조자의 관점, 문화 기술의 보존, 관람객의 유형, 전시의 권위성, 아름다움과 진정성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서 문화의 모든 측면을 재현하고 보완하는 것은 쉽지 않다(Karp 1991: 11).

박물관 문화재현의 첫 걸음은 박물관과 전시내용 간의 관계성에 있다. 프랫(Pratt)은 접촉지대를 식민적 만남 공간(colonial encounter space)이라고 명하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지리적, 역사적으로 분리된 집단과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 관계는 불평등하고, 충돌과 강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접촉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은 문화를 만나고 권력이 불균형한 사회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Pratt 1991: 34). 여기서 지배 문화가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negotiate)의 공간을 제공하여 여러 문화 간 교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Pratt 1992). 클리포드(Clifford)는 프랫의 접촉지대 개념을 박물관에 적용시켰다. 전시라는 조직구조는 역사적, 정치적이며 특히 관계적인 교환과 권력의 줄다리기라고 제시하며, 여기서의 권력통제는 비대칭적이지만 접촉이란 시각을 통해 주체들의 상호작용, 연동 이해, 그리고 실천을

조명한다(Clifford 1991: 192). 클리포드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탈식민 시대에 박물관 문화재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문화의 내부자인 현지인과의 협력과 대화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아이작(Isaac)은 주니 박물관에서 박물관 큐레이터와 주니인 사이의 공공지식 획득과 전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니박물관은 지식을 중개하는 주체로 주니인과 비주니인 간 상이한 지식패턴으로 생긴 다른 기대들과 긴장을 타협함으로써 주니에 대한 공공지식을 전시하였다. 이는 대다수 주니인이 갖고 있는 지식 보다는 박물관에서 공공화를 위해 제도화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Isaac 2005). 보스트(Boast)는 타협과 협력이 가능한 접촉지대의 낙관적 측면도 인정하지만 접촉지대의 핵심 문제는 비대칭적인 공간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 공간이 처음부터 중심이고 중심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Boast 2011: 67). 보스트는 접촉지대에서 발생한 권위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삼아 분석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균형성 위에 형성된 접촉지대를 다룬다. 천경효는 접촉지대를 논의했던 기존의 학자들이 타협과 협력의 측면을 고려했지만, 여전히 전시자와 피전시자, 자아와 타자, 서구와 비서구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Chun 2012: 26-27). 서구인이 자문화를 재현하거나 비서구인이 자문화를 재현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천경효는 비서구에 속하는 한국의 국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표출된 탈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전시자와 피전시자라는 이분법 대신 박물관과 관람객, 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에서 반식민-민족주의(anticolonial nationalism)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분석하였다(Chun 2012: 198-199).

대규모 중국관광객이 몰려오는 국립민속박물관 내 행위주체들의 관계는 이상 분석하듯 단순 전시자와 피전시자의 관계를 넘어서, 전시자와 관람자 간 접촉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관광객을 맞이하는 문화중개자는 ‘전시자’로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관광객은 전시 내용 중 중국의 역사와 문화로써 이해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異)문화임에도 낯설면서 익숙하게 느낀다. 따라서 중국관광객은 체화된

자신의 지식체계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박물관은 아이작이 말하는 전시자와 피전시자 사이의 긴장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Issac 2005)이기보다, 제3의 외국관광객으로서 중국 관광객이 전시에 자신의 이해를 표출하고 문화중개자와 부딪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권력의 비대칭(Clifford 1992) 혹은 권위의 불균형 문제(Boast 2012)보다는 평등한 권위관계 아래 전시를 보여주는 측과 받아들이는 측 간 서로 체화된 지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박물관 문화재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전시방식이다. 크루와 심스(Crew and Sims)는 유물중심(object-driven) 전시와 이념중심(idea-driven) 전시를 대비하면서, 전자에서는 특별한 유물에 진정성이 부여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전시자가 사회역사적 조사를 통해서 유물을 재맥락화하여 하나의 주제로 전시한다고 분석했다(Crew and Sims 1991: 159-175). 키르셴블렛-김블렛(Kirshenblatt-Gimblett)은 민족지적 전시를 상황적(in situ)인 것과 맥락적(in context)인 것으로 구분한다. 상황적 전시는 전시물의 부분성을 보완하고 전시물이 있었던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박물관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맥락적 전시는 문자, 차트, 도록, 음성 등 보조 도구를 통해 전시물의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람객의 쉬운 이해를 돕는 형식이지만 전시자가 제공된 분류체계 안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Kirshenblatt-Gimblett 1991: 388-392).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는 유물중심의 전시와 이념중심 전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키르셴블렛-김블렛이 분석하는 맥락적 전시를 적용한 전시실이 관광객에게 크게 작용한다.

박물관 문화재현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볼 때 재현의 내용에 있어 접촉지대 개념이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접촉지대 개념은 문화가 비대칭적인 사회적 공간에서부터 박물관까지 적용되며, 서구인이 비서구를 전시하는 것에서부터 비서구인이 자신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접촉지대에서 전시와 관람객, 그리고 사회 담론만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는다. 박물관이 하나의 관광의 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관람 현상이 변화한 맥락과 박물관이 국내, 혹은

자민족 관람객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접촉지대의 개념은 평등한 권력 하에 전시를 보여준 문화중개자와 전시를 관람하는 중국관광객이 서로 체화된 지식으로 갈등을 빚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촉지대에서 맥락적 전시는 문화중개자와 중국관광객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작용하고 중요하다.

2) 진정성과 문화중개자

진정성은 틀리링(Trilling)이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로 박물관에 배치된 물품의 본질(nature)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수장된 예술품이 진품인지, 혹은 진품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Trilling 1972: 93). 관광 연구에서 논하는 진정성은 박물관 전시품의 진위여부와 관련된 것보다 복잡하다(왕 2004: 89).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 관광의 특수성에 따라 전시와 관광객을 둘러싼 진정성 문제를 같이 다룬다.

관광객을 둘러싼 진정성은 타자성과 순수한 문화에 대해 진정성 추구에서 시작하고 이것이 대중관광의 발생이라는 주장이 있다(MacCanell 1976). 반면 근대 관광에서 이미 진정성을 논할 수 없고 관광객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추구할 희망도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Boorstin 1964). 전자에 따르면 관광객과 관광지는 게스트와 호스트의 관계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무대화된 진정성⁷⁾을 보여준다(MacCanell 1973). 그렇지만 후자에 따르면 무대화된 진정성조차 근대성과 상품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실한 관광대상을 보여줄 수 없고 관광객이 경험할 수 없다(Boorstin 1964). 이 두 대립적인 입장은 타자성과 진정성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여기고 진정성이 사회로부터 구성되는 가변성을 간과하였다(Cohen 2004: 318).

7) 무대화된 진정성은 고프먼(Goffman 1959)의 '무대이론'에서 발전해 온 개념이다. 고프먼은 사회행위를 연극이라고 설정할 때 이 연극은 무대와 무대 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무대 뒤의 개인적 삶은 자유롭지만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대 위의 행위가 펼쳐진다. 따라서 무대 위에 연출되는 것은 꾸며진 것이고 무대 뒤의 인생만이 진정성을 가진다. 맥캔넬(1976)은 '무대 위'는 관광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간 접촉과 교류의 공간이고, '무대 뒤'는 무대 퍼포먼스를 준비하기 위한 봉쇄된 공간을 뜻한다. 무대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대 뒤'의 신비함과 봉쇄성을 보장해야 한다. 즉, 맥캔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구성'되지 않은 것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코헨(Cohen)은 상품화가 필연적으로 진정성을 해친다는 관점을 비판하고 상품화가 장인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그들이 만드는 것은 복제품이지만 이 또한 진정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Cohen 1988). 그는 사물의 진정성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경관, 객체, 장소 및 사건의 ‘객관적’ 진정성을 구축할 때에 표현된 주관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진정성도 구성적 진정성이라고 지칭한다(Cohen 2007: 77-78). 구성적 진정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은 관광에서 관광대상이 진정성이 있는지 과연 관광객에게 중요할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첸(Chan)은 베트남에서 중국단체관광객이 자국의 근대성을 상기하는 현상에 주목하였고(Chan 2006), 황홍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황홍휘 2006).

이러한 사례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중국관광객이 의식적으로 진정성 추구하러 박물관 관광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물관이라는 접착지대에서 문화중개자와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진정성의 경험을 겪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의 진정성 경험은 관광객 자신의 경험과 떼어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왕(Wang)은 관광객이 더 이상 진정한 관광대상을 찾지 않고 일상에서보다 더 진실하고 자유로운 자아를 찾고 싶어 한다고 밝히며 이를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으로 정의하였다(왕 2004: 92). 그러나 실존적 진정성에서 논하는 경험은 여전히 ‘진정한’ 관광대상과 연관이 있으며 관광객이 얻는 진정성은 사실상 객관적 진정성과 실존적 진정성의 혼합으로 볼 수 있다(Cohen 2004: 323). 본 연구에서는 코헨의 입장에 취하고 진정성의 구성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객관적 혹은 실존적 진정성을 구분하는 것에 비해 진정성이 어떻게 문화중개자와 관광객의 갈등과 타협 속에서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문화중개자의 역할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한다.

문화중개자의 역할은 관광대상과 관광주체의 다리가 되어 진정성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스미스(Smith)는 관광연구에 문화중개자의 개념을 끌어왔지만 문화중개자라는 용어에 문화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고 호스트와 게스트의 관계에서 문화중개자의 행위 방식과 정체성만 논의했다(Smith 1989). 반면 쿠린(Kurin)은 박물관 자체가 문화중개자라고 주장하여 문화중개자의

초점은 문화에 있다고 강조하였다(Kurin 1997). 윤현호와 이훈은 경주 양동 마을에서 관광객이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소비 대상으로 보는 과정에 가이드와 해설사의 행위표출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윤현호·이훈 2013).

모들린 등(Modlin, Alderman, Gentry)은 가이드와 해설사를 중개자보다 훨씬 정치적인 색깔을 입은 창조자(creator)로 보고 그들이 역사적 과거를 재구성할 때 선택적이고 감정적인 서술방식을 통해서 관광객의 역사적 공감과 이해를 크게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odlin, Alderman, Gentry 2011). 그렇지만 이런 관점은 가이드와 해설사의 표면적인 모습만 분석대상으로 삼았을 뿐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대변해야 하는 입장 그리고 관광객과의 관계 유지 사이의 심리적인 타협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코헨은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므로 그것의 타협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Cohen 1988: 374). 본 논문에서는 모들링 등이 제시한 ‘창조자’로서의 가이드와 해설사의 개념을 비판한다. 가이드와 해설사는 단지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해체계와 관광객의 호기심을 고려하면서 자신만의 진정성을 구축해 나가며, 관광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타협한다고 주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관광연구에 있어 진정성은 접촉지대에서 시작하여 문화 중개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진정성을 지나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진정성은 언제나 어떤 하나의 성격만 가지지 않고 여러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구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진정성을 경험하는지, 또 진정성 경험을 통해서 관광 행위주체 간의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 차이로 인해 생긴 진정성 추구 차이와 진정성 경험의 변화 측면을 논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2015년 9월 중하순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예비조사와 2016년 3월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민족지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참여관찰, 비공식 면담, 심층면담, 그리고 문헌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장소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이다. 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전시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삶을 외국인에게 소개하기에 좋은 공간이다⁸⁾. 중국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박물관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연구장소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속박물관을 관광의 장으로 볼 때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대상은 박물관을 대변하는 중국어 전담 안내사(이하 안내사), 외부 여행사 가이드(이하 가이드), 그리고 중국관광객, 총 세 집단이 해당된다.

예비조사 기간과 본조사의 첫 2달 동안 연구자는 매주 4회의 빈도로 중국어 정기해설 시간에 안내사와 같이 입구에서 중국관광객을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며 관람과정에 참여하였다. 같이 이동하는 동안 관광객의 일원처럼 연구자 본인도 관람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내사의 언행뿐만 아니라, 안내사와 중국관광객의 대화 및 감정표출 등을 세밀하게 포착하였다. 전시해설이 끝난 후에는 전시를 듣는 동안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관광객에게 비공식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박물관 카페나 인근 휴게장소에서 연구자의 의문에 대해 토론하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기해설 시간에 관광객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사와 함께 전시실을 돌면서 전시의 내용 및 관광객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정기해설에 참여하며 한 안내사에게 해설을 한번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해당 안내사의 일반적인 코스 구성을 분석하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해설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지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관광객의 차이에 따라 해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자세하게 관찰하였다. 아쉽게도 안내사의 요청에 따라 5월 13일부터 참여관찰은 중단하였다. 심층면담의 경우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본 논문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8) 다른 박물관에 비해 국립민속박물관의 중국관광객 방문수가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가이드의 경우는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여러 번(2회 이상) 만날 수 없었다. 가이드의 역할은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 중국관광객에게 박물관에 대해 설명하고 안에서 활동할 때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연구자가 다가가서 연구의 의사를 밝히고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단체관광객 뒤를 따라가면서 해설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61명의 가이드에 대하여 참여관찰을 하였고, 그 중 2명은 현지 가이드가 아니라, 인솔자로서 중국에서부터 관광의 전체과정을 동행하는 가이드였다. 안내사 대상으로 조사할 때와 달리 가이드의 경우는 연구자 스스로 참여하는 것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이드와 단체관광객 간의 상호작용을 보았다. 가이드의 해설이 끝난 후에 보통 10-20분의 자유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이드 혹은 단체관광객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기해설과 가이드 해설은 일평균 3-4회를 동행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혼자서 전시를 보는 개인관광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관광객은 단체관광객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전시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박물관에 관광하러 오는 이유와 느낌도 물어볼 수 있었다. 상대방이 전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였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진정성을 추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단체관광객으로 오는 중국인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관광객은 20대 중후반 여성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에 돌아가고 나서도 한국관광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은 각 집단별로 다르게 이루어졌다. 안내사의 경우는 연구대상자들의 요청에 의해 현역 안내사 대신 전임 안내사를 만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가이드의 경우는 박물관에서 2번 이상 만났던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가이드는 4명이었다. 박물관 관람 시 비공식 면담에 참여한 42명의 관광객 중 2명과는 동영상 통화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16명의 관광객에게는 전시, 안내사, 가이드와 박물관 공간에 대

한 질문을 담은 서면면담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박물관 현장직원, 그리고 큐레이터들과의 대화 또한 연구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박물관 수위는 현장에 가장 오랫동안 있는 사람으로, 중국관광객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를 통해 박물관에 오는 중국관광객의 방문수량과 형태의 실제 변화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박물관 관광에서 등장하는 외국인으로서 중국관광객과 여행사 가이드, 박물관 안내사가 전시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 및 타협의 역동적 과정에 대해 주목하고 민족지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론은 총 세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Ⅱ장에서는 연구현장인 민속박물관 및 연구대상에 대해 소개하는 장이다. 현대 대중관광에서 유적지와 연동하여 박물관은 이미 불가피한 관광의 장이 되고 관광의 장에서 관광객을 데려온 가이드, 가이드의 해설 문제로 인해 생긴 안내사, 그리고 몰려오는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설명한다.

Ⅲ장은 가이드, 안내사 및 중국관광객 사이의 접촉을 보여주는 장이다. 서로 체화된 역사문화의식의 차이에 따라 중국관광객은 안내사가 추구하는 ‘정확한 지식’을 부정한다. 가이드는 중국관광객과 안내사의 입장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관광객과는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내사 입장에서는 가이드가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역사문화의식으로 인한 안내사 대 ‘가이드와 중국관광객’ 간 상충이 발생한다.

각 행위주체가 지식을 둘러싸고 부딪칠 때 가이드와 안내사는 관광객의 수요와 전시의 특성에서 타협점을 찾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IV장에서는 우선 제1, 2전시실의 유물 중심의 전시와 비교하여 제3전시실의 맥락적 전시가 열어준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문화중개자간의 상이하지만 상충되지 않는 스토리텔링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의미의 구축으로 나타난다. 가이드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진정한 한국인의 일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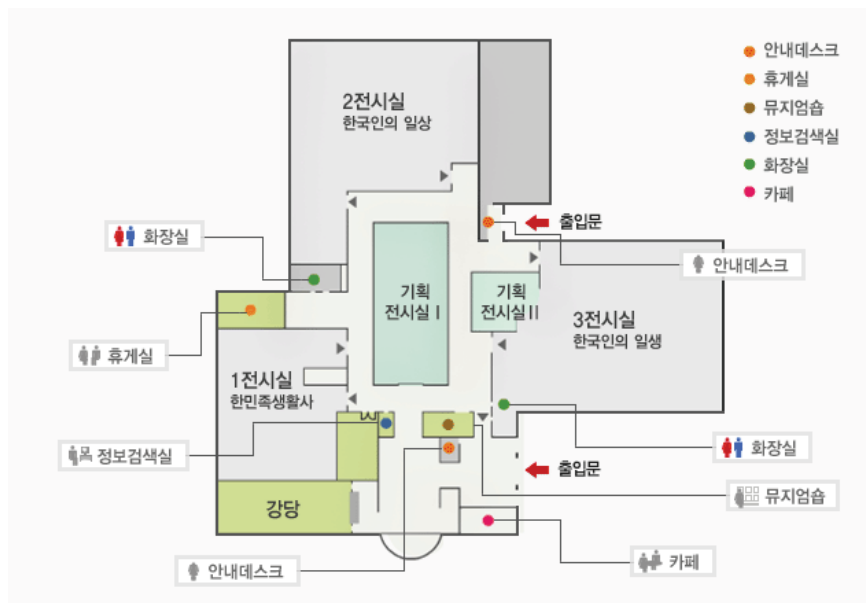
제시한다면, 안내사는 전시내용에 주목하여 객관성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을 구축한다. 문화중개자가 의미를 구축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중국관광객에게 익숙한 유가사상이다. 유가사상의 발상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관광객들은 오히려 한국인의 삶 속에서 유가사상을 쉽게 볼 수 있음을 제3전시실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이는 중국관광객들에게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중국의 전통문화를 재고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한류 콘텐츠의 진정성 또한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여기서 중국관광객은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여 기대를 투사하고 과거를 연상하며 진정성을 느낀다.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은 행위주체 간의 진정성 문제가 어떻게 타협되는지도 보여준다.

Ⅱ. 관광의 장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1. 유적지 옆의 박물관

1)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와 공간구성

민속박물관은 크게 실내전시실과 야외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실내전시실은 본관과 어린이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다. 본관에는 3개의 각각 독립적인 상설전시실들이 있다. 본관의 중앙에 있는 큰 기획전시실을 둘러싸고 상설전시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Ⅱ-1]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실내 구조도⁹⁾

3개의 상설전시실은 각기 다른 차원에서 한국인의 민속을 표현한다. 제1전시실¹⁰⁾은 국가와 개인, 제2전시실은 마을과 개인, 제3전시실은 한 개인의

9) <<http://www.nfm.go.kr/Introduce/mCondition.jsp>>, 최종 접속일 2016.10.10.

일생의례 측면에서 한국의 민속을 소개한다.

제1전시실은 “한민족생활사”라는 제목으로 총 4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전시실의 도입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1948년 총선거까지의 약 5000년 역사를 포함하는 연표를 통해 역사적인 맥락이 재현되었다. 1부 ‘자연 속에서 인간 속으로’에서는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생활모습을 전시하였다. 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주먹도끼를 중심으로 도구의 개발에 따라 생산력이 증가되고 계급이 생기는 등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2부에서는 영역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시기적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대륙과 바다를 무대로 한민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대륙과 바다를 무대로 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고구려벽화 재현 모형, 발해정효공주의 무덤 재현물 및 통일신라 시대 경주 고성의 전반적인 재현모델이 있다. 2부 마지막 코스에는 “해상의 꿈을 꾀다”는 타이틀로 해상무역의 발달을 표현한 전시가 있다. 3부에서는 ‘문화의 향유’란 주제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생활모습을 담았다. 인쇄문화와 한글 창제 및 보급에 따른 지식의 확산, 생활용품에 담긴 멋과 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물품의 전시는 주로 병풍, 도자기, 가구, 그림과 문서 등 유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4부는 ‘대중의 등장과 성장’이란 제목으로 개항 이래 근현대까지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주로 1920년대 및 1970년의 가정 실내 환경을 보여 주면서 당시 실제로 사용된 생활용품들을 방 안에 배치하였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한국인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일반 민중들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제2전시실의 제목은 “한국인의 일상”으로 조선시대 마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살기 좋은 곳에 터를 잡은 한국의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온 최소 단위의 생활공간으로, 이 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을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의 중앙에는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물자들을 연결해주는 시장에 나타났던 한국인의 일상 전반이 유물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벽면을 따

10)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시실을 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전시실과 관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라서 사계절의 순환에 따른 농경세시를 바탕으로 한 생업(농업, 어업, 인삼업 등)·의식주·수공예 등의 다양한 일상을 담았다.



[그림 II-2] 제2전시실 앞 장승

우선, 제2전시실 앞에는 마을의 안녕을 상징하는 장승이 세워져 있다. 마을의 형성과 조직에서부터 각 부분별 공간을 구분하는 장치는 계절 변환의 표시문이다. 봄에는 1년 농사의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한편에는 농촌에서 논밭을 갈고 파종을 하는 등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을, 다른 한편에는 어촌에서 갯벌농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진열하였다. 여름 부분에 들어갈 때는 여름 매미의 울음소리가 나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II-3] 여름파트 도입부

여름 부분에서는 김매기가 끝나고 호미씻이와 더불어 대동놀이를 하였다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닷가 염전에서 강한 햇볕 아래 소금을 만드는 도구들이 눈에 들어온다. 농사를 짓는 부분에 이어 농사가 끝나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옆에는 더위를 날리기 위한 모시와 삼베로 만든 여름옷들이 전시되어 있다. 시장에서는 물물교환뿐 아니라 탈놀이판도 같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교역 물품과 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가을의 도입부에는 입추대길(立秋大吉)이 써져 있는 한옥대문이 있다. 실제 사용했던 옛 가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가옥구조와 공간 활용 모습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겨울 부분에서는 곡식의 씨를 보존하는 창고, 두부 만드는 장면, 그리고 김장을 담그는 장면 등을 작은 인형 모형과 동영상으로 재현하였다.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시 유리창 옆에 김치의 역사, 종류, 만드는 법을 다국어로 설명해주는 음성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제3전시실은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의 일생을 재현하는 공간이다. 현재 제3전시실의 모습은 2006년도 리모델링 이후 새로 바뀐 것이다.¹¹⁾ 박물관 큐레이터 공 씨에 따르면 명확한 시대배경이 있다는 것이 1,2 전시실과 3전시실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한다. 제3전시실은 조선시대라는 명확한 시대적 배경 하에 한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쓰던 유물들이 전시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생활물품은 대부분 궁에 있었던 것이고 왕릉에서 출토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민중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일반민중의 생활물품은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물수집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전시대상의 시점을 현대와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로 택하였다는 것이다. 제3전시실에서는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에 초점을 맞춰 일생

11) 제3전시관 리모델링

공지<http://www.nfm.go.kr/Inform/ninfor_view.nfm?seq=8462&nowPage=1&searchColumn=&searchWord=> 최종접속일 2016.08.14.

의 여정을 재현하고 있다. 의례를 거행하고 유지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평민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전시된 주체 또한 양반사대부이다. 아울러 유물들도 1, 2전시실보다 화려하고 정교하다.

전시한 대상 외에도 제3전시실은 일생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과는 다른 전시 방식을 취하였다. 일생의 많은 과정들은 유물 분류를 통해서 전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제3전시실의 곳곳에는 마네킨과 물건모형을 통해 무형적인 문화를 가시화하기 위한 장면 재현들이 있다. 키르셴블렛-김블렛에 따르면 맥락적인(in context) 민족지 전시방법은 특별한 기술 및 배치를 통해서 이념을 전달하고 표출하는 것이다. 전시 물품들은 하나의 맥락 안에 들어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념은 흔히 긴 레이블, 도표, 그리고 이어폰 음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 맥락적 전시는 물품의 역사적 배경과 여러 다양한 문화형식을 고려해 전시 물품을 선택·분류하므로 물품 간의 관계 정리에 강한 인식 통제(cognitive control)가 드러난다(Kirshenblatt-Gimblett 1991: 390). 제3전시실의 전시방식은 키르셴블렛-김블렛이 말하는 맥락적 민족지적 전시 방법과 비슷하다. 제3전시실은 유물과 재현물을 통해, 조선시대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한 양반사대부의 출생과 죽음까지의 일생을 표현한다.

제3전시실의 도입부에는 신방이 재현되어 있고 부부의 합방으로써 한 아이가 탄생했을 이야기한다. 신방에서 강조하는 것은 음과 양의 조합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음양설은 빨간색(양)과 푸른색(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불과 한복의 색깔은 역시 빨간색과 푸른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방의 병풍을 실제유물 대신 제책못으로 대형 현수막을 고정시킴으로써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고유한 미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II-4] 신방



[그림 II-5] 돌잔치

출산 이후에는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열어 아이가 무사히 성장한 것을 축하한다. 돌잔치에서는 아이가 오방색으로 되어 있는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한다.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아이에게 가장 강조되는 사상은 바로 ‘삼강오륜’이다.



[그림 II-6] 삼강오륜



[그림 II-7] 서당 내부

서당에서는 연령과 계층의 구별없이 아이들이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아이들은 교육과 성장 과정을 거쳐, 성인례를 맞이한다. 성인례는 관례 혹은 계례(여)라고 부른다. 성인례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삼아 그 뒤에는 어른으로서 친영과 혼례를 치르는 장면이 전시되어 있다.

가족을 이루고 나서는 과거시험을 보러 출세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출세”부분은 3전시실의 중심에 위치하고 다른 부분보다 바닥이 조금 높다. 제3전시실을 설계한 학예연구관에 따르면 이는 관직에 올라가는

것, 즉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표현하기 위해 지대를 일부러 높게 만든 것이다.



[그림 II-8] 성인례 부분



[그림 II-9] 출세 부분 전경

이어서, 출세한 사대부가 풍류를 즐기는 시간이 표현되어 있다. 풍류 부분에서는 관람객이 음성기기로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놀이를 실제로 즐

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 II-10] 풍류에서 전시된 여러 악기 [그림 II-11] 쌍륙을 노는 커풀

일생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병사(病死)이다. 치유 부분의 한편에서는 한의학 대표 서적인 <동의보감>에 실린 치료 원리, 약재와 침구, 그리고 약방의 모습을 재현한다. 다른 한편에는 굿청, 주술과 점복이 전시된 공간이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병이 들면 보통 약방에 가거나 민간신앙을 믿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 II-12] 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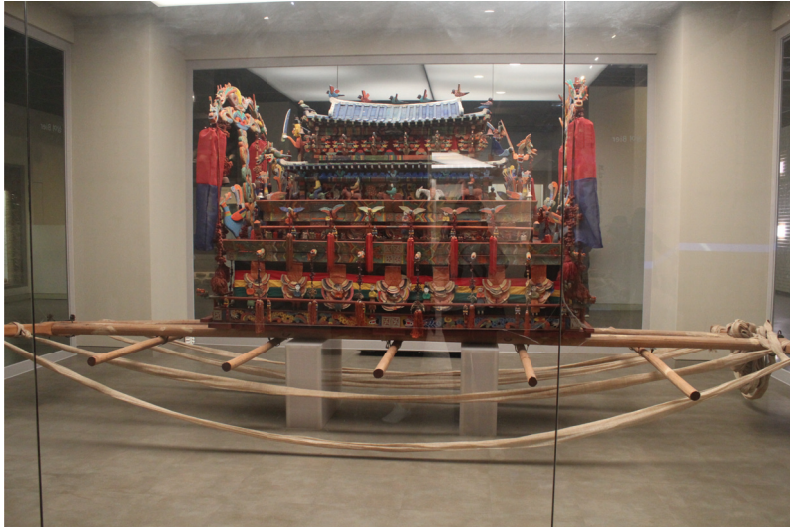


[그림 II-13] 굿청

회갑 잔치를 치른 이후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슬픔을 달래는 상례와 제례가 이어진다. 삼년상이라는 상례를 치른 다음 돌아가신 조상을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손의 번창과 친족 화합을 도모한다. 상례까지 치루고 나면 일생의 여정이 끝이 난다.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유물은 “상여”이다.

이 상여는 150여년 전 종친집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여 위에

새겨진 다양한 색채와 사물들은 그 화려함과 정교함을 뽐낸다.



[그림 II-14] 상여

제3전시실의 끝에는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는 벽이 있다. 이를 통해 민속박물관의 유물들이 대부분이 민간인이 사용하였던 물건들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기증자 명단 중 외국인 이름이 많아지는 추세를 통해 해외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²⁾

2) 국립민속박물관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경복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1945년 11월 8일에 민속학자 송석하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신인 국립민족박물관이 창립되었다. 송석하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서구문화의 침투로 인해 사라진 한국의 민속을 보존하기 위해 민속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그의 가장 큰 목적은 일반인에게 민속을 알리는 한편, 한국인에

12) 전시에 대한 소개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설명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었다.

〈<http://www.nfm.go.kr/Display/firstintro.jsp>〉 최종접속일: 2016.09.09.

게 세계 민속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에 있었다. 1949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립민족박물관이라는 직제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송석하의 타계와 한국전쟁 발발로, 1950년 12월 국립민족박물관은 정부의 행정간소화 일환으로 국립박물관의 남산 분관으로 통합 흡수되었다.

1966년~1975년은 한국민속관시대로 지칭되는데, 이 시기 박물관 건물은 경복궁 안 수정전(修政殿)에 위치했으며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1966년에 수정전 내 민속관이 한국 전통문화 저장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1972년 6월에 문화재관리국이 별도의 민속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민속박물관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건물선정부터 민속자료의 수집까지의 과정을 거쳐 1973년 6월 15일에 경복궁 내 현대미술관이 덕수궁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인수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1975년 4월에 비로소 한국민속박물관이 옛 현대미술관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민속관 시절은 종료 되었다.

이후 1979년 4월13일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직제가 개정되었고, 명칭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1992년 10월 30일에 국립중앙박물관 산하기관에서 문화부 직속기관으로 독립되었다. 1993년 2월 17일에 현 건물로 이전·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1996: 91-287).

경복궁과의 이러한 역사적 관계로 인해 민속박물관은 궁에서 살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민속박물관에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아지는 것도 경복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림 II-15]에서 제시한 것처럼 민속박물관으로 들어오는 경로로는 1번 박물관 정문과 경복궁 6번 후문매표소 두 군데가 있다.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야외 전시장을 거쳐서 본관으로 들어가는 한편, 경복궁 후문에서 들어오면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본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개인관광을 하러 온 정씨(중국관광객, 여, 32세)는 경복궁 옆에 있는 박물관의 위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혼자 여행을 온 정씨(중국관광객, 여, 32세)는 당초 민속박물관의 존재를 몰랐으나 경복궁 후문에서 나오자 마침 박물관이 등장해 우연히 들른 것이

었다. 그녀는 박물관이 경복궁 옆에 있어서 더 활기 있고 관광객에게 식별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즉, 관광이 박물관이 발전하는 데에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 II-15] 국립민속박물관 안내도

어떻게 볼 때 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은 박물관 그 자체가 관광의 장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대다수 관광객들은 박물관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관광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에 따르면, 중국관광객이 민속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패키지 관광객에게 해당하는 코스이다.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경복궁으로 들어가 향원정을 지나서 후문으로 나와 민속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박물관에서 관람이 끝나면 다시 경복궁으로 들어가서 광화문으로 나간다.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 공간, 유적지, 민속문화란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기도 하나, 가이드 입장에서는 인접관광지를 돌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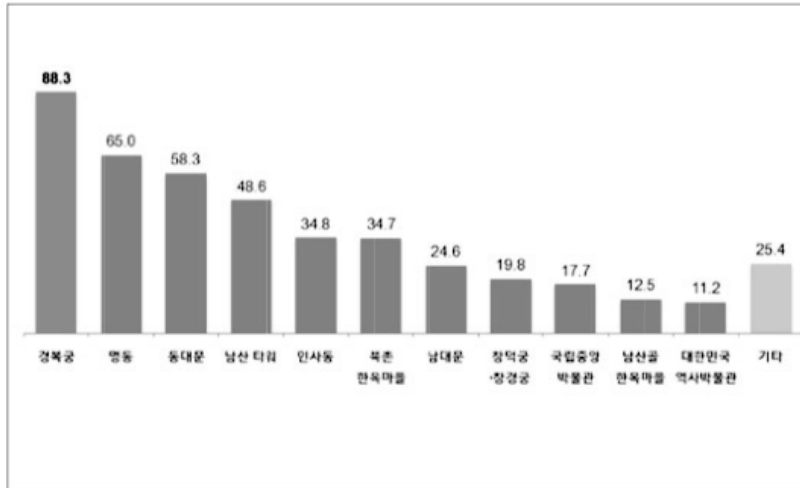
나는 것이 시간절약 효과가 있고 박물관이 무료입장이라는 실질적인 장점 또한 컸기 때문이다. 개인관광객의 경우에는 경복궁과 민속박물관, 그리고 북촌으로 가는 코스가 주를 이룬다. 박물관 관광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북촌에 가는 것이다. 그들은 건축물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제공하는 생활문화 체험도 많이 한다.

다른 외국인에 비하면 중국인은 경복궁 및 민속박물관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씨(인솔자, 여, 30세)는 이런 경복궁-민속박물관 노선이 중국관광객에게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노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솔자를 하기 전에 중국 국내 가이드를 해 본 적이 있어서 중국관광객 특히 단체관광객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가 많았다. 연구자와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관광업 및 중국관광객의 성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 대중관광객의 특성은 상징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다. 무엇보다 경복궁은 중국의 고궁(故宮)과 같은 존재란 인식이 있어서 한국에 오면 반드시 경복궁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 대중 관광객에게 소중¹³⁾(小眾)적인 관광지에 데려가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낮아서 만족도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관광객은 탐험적인 것, 색다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반드시 이미 알려진 유명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입장이다. 민속박물관은 경복궁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민속박물관이 경복궁과 분리된 장소인지도 모르기도 했다. 가끔 민속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온 뒤 “우리 일정에 박물관으로 가기로 했는데 왜 안 가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즉, 중국관광객에게 민속박물관은 경복궁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박물관에서 소개된 내용 역시 한민족이란 큰 이미지 속에서 경복궁과 지식적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한다. 어리(Urry 2009: 18-19)는 이렇게 상징적 사물에 대한 주목을 관광객 시선(tourist gaze)이라고 설명하였다. 관광객 시선은 한 지역의 토대를 형성하는, 독특하면서 대신할 수 없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경복궁 및 민속박물관은 한국에 오는 중국관광객에게 이미 하나의 상징 부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대중과 반대된 소수의 집단을 뜻하는 중국말이다.

· 국립민속박물관 방문 전 방문한 관광지로는 '경복궁'이 88.3%로, 전체의 4/5에 가까운 관람객이 경복궁을 방문한 후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Base: 외국인 관람객, n=626, 복수응답, 단위: %)

[표 II-1] 경복궁 방문 후 민속박물관 방문¹⁴⁾

3) “시간 때우는 곳”

상징적인 공간을 선택해 관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공간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것만 아니다. 관광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편의시설 이용의 문제이다. 민속박물관은 경복궁보다 편리한 실내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실제로 중국관광객이 중국국내여행을 할 때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관광지 편의시설 부족이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관광지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은 것은 화장실의 수준이다. 민속박물관은 이런 측면에서 중국관광객에게 칭찬받는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한다. 여기서 중국관광객과 한국관광객이 민속박물관에 대한 공간 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2015년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121쪽.

강씨(현장직원, 40대)는 중국관광객이 박물관을 “시간 때우는 곳”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중국관광객은 경복궁을 방문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오는 목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휴식은 전시를 보는 감상이 아니라 피곤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의미이다. 또한 중국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가 패키지 관광객은 진정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가이드에 인해 타의적으로 전시를 보게 되거나, 이곳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소로만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내공간이라는 점 또한 중국관광객들에게 민속박물관이 휴게소로 인식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경복궁에서 관람할 때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강제로 가이드를 따라가야 하는데, 민속박물관은 출입구가 하나라서 가이드와 약속한 집합시간에 출입구에 오면 된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관람행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단체관광객 중 해설을 원하는 사람은 가이드를 따라가고 체력이 부족한 관광객은 박물관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림 II-16] 박물관 정문 쉼터¹⁵⁾ [그림 II-17] 제1전시실에서 쉬고 있는 관광객

개인관광객 정씨(중국관광객, 여, 32세)는 박물관이 공공시설로서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녀는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한 이유로 박물관 카페에서 음식물을 구매하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 기다렸던 경험

15) 조선사회, 2014.02.24.,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는 경복궁, 일본인은 창덕궁”에서의 사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4/2014022400100.html, 최종접속일 2016.08.09.

을 얘기했다. 이중 대부분이 중국관광객으로 인식돼 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저 쉬러 온 것인지 헷갈렸다고 하였다.

민속박물관의 공간이용의 변화는 가이드와 여행사, 관광시장과도 큰 연관이 있다.

[사례 Ⅱ-1] 김씨 한국인 가이드 남/심층면담/2016.07.07

민속박물관에 가봐서 알겠지만 엉망진창이에요. 어떨 때는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설명도 못해요. 우리가 거기 가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그냥 집어넣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 거기를 다 가냐고... 갈 사람만 가게 해서 진짜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거기 관람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박물관이 이게 좋은 건데, 민속박물관이 사실상 볼 게 없는 것 아닌데, 진짜 ‘시간 때우는 데’, ‘화장실에 가는 데’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죠.

김씨(한국인 가이드, 남)는 민속박물관에 자주 가는 한국인 여행사 가이드이다. 중국단체관광의 단조로운 관광노선 때문에 민속박물관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였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제대로 전시해설을 못했고, 박물관이 보여주는 것이 많지만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쉽다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관광의 장으로서 박물관에 등장하는 여러 행위주체를 소개할 것이다. 동시에 이곳이 관광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도 밝히고자 한다.

2. 관광의 장을 구성하는 행위주체들

민속박물관이 중국인의 관광의 장으로 대두될 때, 현장에서 중국인을 상대하는 행위주체도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관광객을 박물관으로 데려갈 여행사 가이드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관광객에게 해설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어 전담 안내사도 빠질 수 없는 행위주체이다.

1) 한국관광시장의 중국어 가이드

(1) 중국어 가이드 집단의 변화

한국에서 중국어 관광시장의 개방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대상은 대만, 홍콩, 그리고 동남아 화인들이었다. 그때의 중국어 가이드들은 대다수 한국 화교였다. 한국 화교는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게 된 사람들이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과 명성왕후 간 정치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원병 요청으로 한국에 온 청나라 군사 4천여 명과 40여 명의 교역 상인이 한국화교의 시초가 되었다(박은경 2002: 275). 그 이후 국공내전 때도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피난 온 화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대만의 해외화교 여권을 가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국적의 제한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였고 중국 음식점 위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화교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하고 출산하였으며, 아이들은 화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화교 2세 혹은 3세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면서 두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화교 2세 가이드 황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자신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관광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직업으로 삼았다.

[사례 II-2] 황씨 화교 가이드 남 55세/심층면담/2016.06.29.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들은 다 대만 국적이거든요. 졸업하고 식당 차리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이드를 하는 일이 거의 식당 빼고 독보적으로 많았어요. 그때(1978년쯤) 대만 관광객이 많은 편이라서 일이 잘 됐어요.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등등, 1980년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등학교]졸업하는 시기였어요. 그 때 중국어 가이드 사업의 번성시기예요. 그때 내가 가이드를 안 했어요. 왜냐면 가이드를 하면 첫째로 말을 잘해야 되니까...

황씨(화교 가이드, 남, 55세)는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이고, 부친이 국공내전 때 전쟁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어 가이드라는 직업이 화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일거리였기 때문에 황

씨(화교 가이드, 남, 55세) 주변에는 10년 이상 가이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주로 친척관계부터 입소문을 통해 온 손님들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화교 가이드가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전체 가이드 수 중에서 실제 화교 인원은 소수이고 그중에서는 무자격증 가이드도 많았다.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됨에 따라 중국 조선족이 점점 한국에 들어와서 가이드 업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모국어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의 인맥이 화교보다 더 넓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화교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화교와 조선족이 가이드 업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와중에 한국인 가이드 또한 이 경쟁에 가세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언어의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관광시장의 변화는 조선족 가이드와 큰 연관이 있다. 화교나 한국인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여행사 운영방식에 익숙하다. 즉, 중국 현지 여행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여행사가 거둔 단체비에서 일부 금액(관광업 용어: 지상비)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가이드를 오래한 조선족은 자기의 여행을 차릴 때 중국에 가서 화교와 한국인 여행사의 파트너를 많이 빼앗았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은 중국 조선족이 중국관광시장의 사업 이념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족 가이드는 지상비를 낮추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싸게 싸게, 많이 많이” 전략이다. 이런 추세로부터 시작하여 지상비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현재는 “마이너스 투어”에 이르렀다. 즉, 한국 여행사는 이제 돈을 중국여행사에게 주고 중국관광객의 인원수를 구매하는 것이다. 조선족이 차리는 여행사가 많이 생김에 따라 한국인 및 화교가 차린 여행사도 어쩔 수 없이 회사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투어”를 받아들이고 정신없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지상비가 적자가 되면서 여행사와 가이드의 수익은 모두 관광객의 쇼핑 수수료에서 나올 수밖에 되었다. 때문에 중국관광객의 단체관광코스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지고 5일 일정 중 단지 하루만 관광지에 데려가 주고 나머지 일정은 각

종 상점만을 방문하며 수수료를 얻는 것이다.

[사례 Ⅱ-3] 김씨 한국인 가이드 남/심층면담/2016.07.07

문제는 회사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가이드는 관광 안내를 해야 하는데, 물건을 파는 가이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실적[쇼핑가게 판매량]이 안 좋으면 단체를 안 줘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이드 하는 경우가 적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의 천하가 됐어요.[...] 완전 엉망이에요.[...] 조선족은 한국어, 중국어 다 잘하잖아요. 어떤 조선족은 손님들이 [쇼핑가게에서]안 사면 뭐라고 큰소리를 해요. 또 어떤 조선족은 심지어 무릎도 꿇어요. 나는 그 꼴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교는 대선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마인드가 그냥 한국인이예요. 예전에 예의를 엄청 주의했어요.[...] 근데 조선족은[머리를 휘둘리면서 부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거지[뒤에 농담이라고 함]예요.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업계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싫은 거예요. 화교와 한국인은 점점 이 직업을 때려치우고 전업하거나 중국 혹은 대만에 가서 한국 손님에게 가이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씨(한국인 가이드, 남)는 한국인 가이드로 이 일을 한지 8년 정도 되었다. 가이드일을 시작할 때 화교 가이드 선배에게 업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화교와 자신이 같은 편이고 가이드 업계의 수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조선족은 예의가 부족하고 이들의 관행이 중국어 가이드 업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의 관광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얼마나 물건을 잘 파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대량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조선족 가이드와 달리 화교와 한국인 가이드는 여전히 예전의 관행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금의 분위기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는 회사 동료 중에 한국인도 있지만 대부분 2-3개월을 하다가 버티지 못해 그만 둔다고 하였다. 그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남은 중국어 가이드는 90%가 조선족이고 나머지 10%는 화교, 한국인, 그리고 소수의 한족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이드 간 해설 전수와 자기 이해

관광통역안내사¹⁶⁾ 자격증 의무화제도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99년 1월자로 폐지되었고 4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걸쳐 2003년 1월자로 자격증 의무화가 권고화로 바뀌게 되었다(정명순 2008).¹⁷⁾ 위에서 분석하듯이 화교 가이드 중에는 중국어 가이드를 일찍 시작해서 경험은 많지만 자격증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의 해설은 대부분 선배에게서 무료로 전수받은 것이었다. 가이드가 된 첫 몇 달간 같은 회사 내 선배의 단체에 따라 돌아다니면서 선배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외우는 식으로 하였다. 이런 업계관행은 2009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이 다시 의무화¹⁸⁾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가이드가 어디서 어떤 해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맞춰서 배우는 젊은 가이드가 대부분이었다. 좀 더 독특하고 재미를 확보하는 해설을 만들기 위해 정해져 있는 틀에 중국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우화나 이야기를 보충하기도 한다.

2011년부터 관광공사가 주최하는 관광안내실무교육이 생기면서 필기시험의 간소화 및 체계적인 관광통역 안내, 현장실습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필기시험에서 관광학개론 및 관광법규 두 과목에 대한 면제 혜택이 부여되었다.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는 관광안내실무교육을 받았으나 관광공사에서 가이드 준비생을 데리고 해설할 때도 한국어로만 이야기하고 관광지를 선택할 때도 일부 여행코스에 한해서만 현장실습을 한다는 것으로만 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결국에는 선후배의 전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회사 선배밖에 없다고 하였다. 특히 박물관에서 해설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해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서 선배 가이드가 업무 없는 날에 직접 후배 가이드를 데리고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포인트를 어떻게 짚어줘야 할지와 같은

16) 관광통역안내사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외국어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해설하고 관광의 과정을 인솔하는 사람이다. 본 논문에서의 가이드가 관광통역안내사를 말하는 것이다.

17) 2003.01: 관광종사원 의무고용제 폐지, 권고 고용제로 전환.

18) 2009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에 대해 의무화한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하였다. “관련법령”,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http://www.kotga.or.kr/guide/rule.php>>, 최종 접속일 2016.08.17.

요령을 가르쳐 준다. 무엇보다 이런 전수의 학습방법은 대다수 화교와 조선족 가이드에게만 해당한다. 한국인 가이드는 어렸을 때 한국 본토의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책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많이 습득한다. 반면에 조선족 가이드는 중국에서 중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한국에 이주해 오면서 처음부터 한국의 공식적인 역사 입장이 어떤 것인지 습득해야 한다. 설사 조선족 학교를 다녔더라도 중국의 역사만을 배웠기 때문에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가이드는 선배가이드로부터 해설을 배우기는 하지만, 해설이라는 것이 관광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이드는 관광객을 데리고 즐겁게 관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지식 전달은 부차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사례 Ⅱ-4] 김씨 한국인 가이드 남/심층면담/2016.07.07.

뉴스에서 중국관광객이 하도 이슈가 돼 가지고 ‘요우커¹⁹⁾’하면서 내가 티비 방송에서 본 적 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게 거슬리더라고요. 중국관광객한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시켜줘야 된다고... 여기서가 나는 되게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나란 사람 자체는 원래 되게 역사문화라든지,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최대한 많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들[중국관광객]은 그냥 여기 와서 ‘관광’하는 사람이에요. 관광이 뭘데요? 나와서 맛있는 것 먹고, 신나게 놀아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며칠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그런 사람한테 왜 꼭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알려줘야 돼요? 나는 여기서 우리 한국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쓸데없는 것애다가 애국심을 붙여[...].

김씨(한국인 가이드, 남)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은 엄밀히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객이 느끼기에 필요 없는 해설로 굳이 시간을 채워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뉴스에서 항상 모든 잘못에 대해 가이드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19) 요우커는 중국어 “관광객(遊客)”의 발음을 모방하여 중국관광객을 뜻하는 관광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고, 최근에 기사에서도 많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중국어 가이드들 사이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증이 권고에서 의무화로 변화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후배의 해설 전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가이드가 해설을 습득하면서 해설을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식의 전달보다 관광객의 수요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2) 궁·박물관 중국어 전담 안내사

(1) 중국어 전담 안내사의 등장배경 및 운영체제

민속박물관에서 정식으로 중국어 전담 안내사가 생긴 것은 여행사 중국어 가이드의 해설 오류 사건이 이슈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에서 제시한 것처럼 2004년부터 가이드가 해설하는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 심하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2006년도에 3대 주요방송국과 주요 신문사에서도 강력하게 보도된 이후 민속박물관에서는 중국어 가이드의 안내 오류 사례를 수집·분석해 상당수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²⁰⁾ 실제로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어, 영어 해설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많았으나, 중국어 가이드들은 무자격 가이드가 많다는 이유로 더욱 이슈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가이드의 해설에 대신을 바른 해설을 관광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궁·박물관 중국어 전담 안내사” 사업을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위탁해 시작하였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종사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행사를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협회이다.

20)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무자격 중 가이드의 역사왜곡”,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42473.html>> 최종접속일 2016.08.17. 뉴스에서 언급한 사례분석은 2006년 8월 18일에 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우리민속 바로알기>에서 “우리 문화 바로 알기-중국어 안내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찾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민속박물관 홈페이지 ‘발간자료 원문검색’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nfm.go.kr/Data/daPub_view.nfm?seq=541&select_tab=0&searchWord=%EB%B0%94%EB%A1%9C&gubun_list=search> 최종접속일 2016.08.17.

연도	보도연월일	언론사	제목
2004년	2004.09.13	여행신문	고구려사 왜곡은 가이드 문제?
	2004.09.30	여행신문	유자격자 고용 의무제 부활해야
	2004.10.27	MBC 문화방송	[이제는 관광이다]중국인들 상대로 한 패키지관광 문제점
	2004.11.11	내일신문	"함량미달 가이드로 한국이미지 나빠져"
2006년	2006.02.11	MBC 문화방송	[보도특집다큐] 관광, 빛을 보다 - 안내소와 가이드
	2006.07.12	KBS 한국방송	한국관광, 다시는 안 간다! 국내 저가관광 실태보고
	2006.07.13	TV리포트	세종대왕, 솔김에 한글창제? 정신 나간 관광가이드
	2006.07.18	미디어오늘	경복궁의 '역사왜곡'
	2006.07.19	서울신문	무자격 가이드들 황당한 역사 왜곡
	2006.07.19	동아일보	황당한 중국인 관광가이드...역사왜곡 심각
	2006.07.19	연합뉴스	〈무자격 中 관광가이드 한국사 왜곡 심각〉
	2006.07.19	국민일보	[사설] 역사왜곡 엉터리 가이드 왜 방치 했나
	2006.07.21	헤럴드경제	중국어 가이드 역사교육 시켜라
2007년	2007.07.08	MBC 문화방송	[시사매거진2580] 쇼핑 권하는 가이드
	2007.07.27	KBS 한국방송	[9시뉴스] 저가 여행 상품이 부른 '덤핑 관광'
	2007.08.05	KBS 1라디오	다큐멘터리 인물과 사건

[표 II -2] 무자격 관광가이드 언론보도현황

(정명순 2008: 8)

가이드가 여행사 소속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잘못은 간접적으로 협회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협회 직원에 의하면 초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경복궁 3곳에 안내사를 파견하였는데, 중앙박물관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국관광객도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는 민속박물관과 경복궁에만 안내사를 투입하고 있다. 2006년 민속박물관에 첫 투입된 안내사 A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3달 동안 안내사 제도를 시험 운영을 하게 되는데 반응이 좋아서 1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예약제가 아니라 여행사 가이드가 안내데스크에 와서 단체관광객에게 해설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다보니 해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예약제(하루 전)로 바뀌었다. 그리고 안내사가 안내데스크에서 단체관광객 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나가는 식으로 변하였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예약제 외에도 정기해설이라는 서비스가 마련되었다. 원칙상 정기해설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공되지만, 정기해설자 중 중국어 자원봉사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내 안내사가 중국어 정기해설 또한 맡게 되었다. 그 후로 중국어 전담 안내사는 정기해설 시

간 동안에는 개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고, 가이드가 데리고 온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을 받아 박물관에서 인솔한다.

연구초기에는 민속박물관에 안내사가 3명이 있었고, 그 뒤로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모두 20-30대의 한국인으로 한국여행업협회에 채용되어 박물관으로 파견되었고 정부 기금을 월급으로 받는다. 주 5일간 출근하면서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한다. 안내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자원봉사실과 분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박물관과 독립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중국어 전담 안내사의 업무 및 해설 학습

안내사의 업무는 주로 해설에 치중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내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안내까지 겸하고 있다. 평소에는 순차적으로 아침 9시 반이나 오후 1시 반에 한복을 입고 박물관 로비 앞에서 개인 중국관광객을 기다린다. 시간이 되면 전시실 안으로 이동하지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전시실을 돌면서 안내 및 해설이 필요해 보이는 관광객에게 도움을 준다. 예약제의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대부분 예약한 가이드는 여행업협회 소속 회원사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안내사와 몇 번을 왕래한 이후 서로 익숙해지기도 한다. 안내사는 자신의 중국어 해설을 오로지 중국관광객에게만 들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자신의 소속이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안내하는 것은 중국인에게 박물관을 대변하는 동시에 여행업협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중국관광객이 없어지면 그들의 존재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어느날 박물관에서 한국어 해설 봉사하는 한국인이 자신과 같이 중국어 공부하는 한국인들을 데리고 중국어 해설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안내사 B는 난감한 표정으로 완곡하게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최근에 안내사에게 부가적으로 생긴 업무는 경복궁에서 가이드의 해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안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초창기에 안내사는 하루 8시간씩 총 2주 동안 박물관에서 학예연구관으로부터 해설 교

육을 받았다. 안내사는 자신이 스스로 한국어, 중국어로 시나리오를 써서 다시 학예연구관의 검사를 받았다. 원고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는 학예연구관에게 시연 검사를 받아야 현장에서 해설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관의 교육에 비하여 자신이 학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늘었다. 평소에 연구관이 추천해 준 자료를 습득하고 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실에서 관련 책을 빌려서 공부하기도 한다. 안내사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 그대로 해설하지 않고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 그들이 알고 싶을 것 같은 내용을 찾아서 중국어로 작문해서 활용한다. 그중에서 중국의 사자성어, 속담 등 중국인에게 식별도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구성한다. 무엇보다 안내사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 정보의 공유와 토론이 많이 이루어진다. 해설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주의점을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3) 몰려오는 중국관광객

(1) 중국인의 한국관광

중국과 한국은 지리상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간 유사성도 공유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양국의 경제·문화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짐에 따라 1998년 5월 5일에 한국은 정식으로 중국국민²¹⁾의 해외관광목적국가(出境旅遊目的國)로 지정받았다. 이는 관광비자의 발급에 큰 열정적인 지정이었다. 1998년 8월에 중국관광단체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 2000년 6월부터 9개의 성과 시 국민에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2001년부터 중국은 한국관광시장의 2위 국가로 부상하여 관광상품, 한류영향, 한국이미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줄곧 관광업을 주요산업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자연경관 및 유적지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오락시설도 중국보다 한 발 앞서갔다. 지리상의 편리함, 비슷한 기후,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유

21) 국민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헌법에 따라서 행사해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사한 배경은 인해 중국인이 방한하는 데에 긍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했다(江林 李祉輝, 2005: 9-10).

그렇지만 2000년 초반부터 2008년 전까지 한국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중국 단체는 고찰단(考察團)²²⁾, 공무단(公務團)²³⁾,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2008년 북경올림픽대회 이후 중국국가여유국(中國國家旅遊局)이 “중국국민출국관광관리방법²⁴⁾”을 개정하면서 대중관광객의 해외여행이 더욱 활발해졌다. 최씨(인솔자, 여, 30세)에 의하면, 2008년 북경 올림픽대회 때문에 국제관광상품이 저렴해지고 국내여행의 열풍도 같이 거세졌다고 한다. 그때부터 여행,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국문(國門)을 나가 바깥세상을 보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인구의 총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은 다르다. 이에 대해 여행사의 전략은 대부분 사람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코스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 여행은 패키지 상품 중에 가장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외 첫 관광코스였다.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회의에서 단원의 근무태도(工作態度)에 대해 규정을 세웠다. 연구활동 및 외출 방문할 때 인원수를 엄밀히 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모든 과정을 간소화하라는 규정²⁵⁾이 나오자 공무단과 고찰단의 수가 해마다 적어졌다. 이와 반대로 200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대중관광의 열풍은 해마다 뜨거워졌다. 2013년부터 중국관광객이 한국관광시장의 점유율을 1위²⁶⁾를 차지하면서 해외여

22) 고찰단은 중국에서 학습 혹은 연구의 목적을 두어 한국에 방문하는 단체를 말한다. 주로 학교, 연구기관에서 보내는 사람을 뜻한다.

23) 공무단은 중국 정부의 출장 원인으로 오는 단체를 의미한다.

24) “중국국민출국여행관리방법(中國公民出國旅遊管理方法)”,
<http://www.cnta.gov.cn/ztwz/cjyzt/gltl/201507/t20150708_723264.shtml>, 최종접속일 2016.08.18.

25)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審議關於改進工作風、密切聯繫群眾的有關規定
分析研究二〇一三經濟工作”, 중국공산당뉴스, 2012.12.05.,
<<http://cpc.people.com.cn/n/2012/1205/c64094-19793530.html>>, 최종접속일 2016.08.18.

26) “연도별통계(1975-2015)”, 한국관광공사, 2012.02.27.,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379522&isNotice=true&instanceId=294&rnum=0>>, 최종접속일, 2016.11.02.

행은 중국관광객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김씨(한국인 가이드, 남)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 젊은 세대는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선호하고 더 “세련된 것”을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 좋은 화장품을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중노년층 및 농촌에서 온 관광객은 근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류”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먼 옛 역사 속에 있는 이웃나라라고 생각하며 문화적으로 관련이 깊어서 한번 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2) 중국관광객의 박물관 투어

위에서 분석하듯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연령에 따라 관광지의 선택이 크게 달라진다. 박물관에 찾아오는 중국관광객 중 박물관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지식인들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대학교(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사회경험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다. 이들은 박물관을 한 지역의 축소된 모형이라고 생각해서 박물관으로부터 한 지역 혹은 국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문 목적을 갖고 있었다. 경복궁과 인접한 이유로 민속박물관을 들렀더라도 박물관에서 흥미와 지식을 얻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례 II-5] 정씨 중국관광객(FIT) 여 32세/동영상 면담/2016.04.09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 민간 문화를 소개해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扫盲[지식의 맹점을 퇴치하다]’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많이 아는 것 아니겠지만 예전에 중국국내에서 봤던 것과 대비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정씨(중국관광객, 여, 32세)는 민속박물관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민속이라는 주제는 일상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이곳에서 과거 평범한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대비해서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씨(중국관광객, 여)는 민속박물관을 소리없는 이야기 기계라고 비유하며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한국사회의 미니 버전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딱딱한 전쟁, 역사 전시보다 삶에 더 친숙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진열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윤씨(중국관광객, 남, 25세)는 미술전공자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풍속그림에 관심이 많았다. 그림의 회화 기법부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의까지 생각하고 재밌게 박물관 투어를 하였다. 건축학을 전공한 장씨(중국관광객, 남)와 임씨 어머니(중국관광객, 여)는 한옥의 구조와 건축법에 자세히 알아보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개인관광객은 자신의 취미와 전공에 따라서 “아는 만큼 보인다”와 같이 민속박물관에서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였다.

민속박물관에 오는 단체관광객은 개인관광객과 색다른 관광행위를 보였다. 민속박물관에는 단체관광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박물관에 들어가면 개인관광객은 가려진 풍경처럼 느껴진다.

[사례 II -6] 오씨 현장직원 남/비공식 면담/2016.05.09

박물관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그냥 관광지처럼 놀러오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 신부 가마 앞에 막고 있는 난간은 3번이나 부서졌어요. 뜯고 들어가려고. 또 저기 혼례의 남자마네킹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남자손님이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다가 넘어졌어요. 마네킹이 넘어졌어요. 팔목이 없어요, 지금. 팔목을 가지고 갔대요, 중국으로. 부러진 것. 유물에 손대는 것은 생각보다 많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라면 중년아줌마들이예요. 재밌는 게 젊은 사람들은 2-3명씩 오는 거면 그나마 괜찮아요. 뭘 알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조차 단체로 올 경우는 또 그 개념이 사라졌네요.

오씨(현장직원, 남)는 박물관에서 오래 일했던 수위이다. 그에 따르면 박물관에 오는 중국관광객은 같은 연령대에 속하더라도 개인관광객과 단체관광객은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된다. 단체관광객의 경우는 박물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박물관이 어떤 공간인지, 어떤 행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 어떤 관광객은 외국에 나오는 것이 처음일 뿐

만 아니라 박물관 방문도 처음이다. 박물관을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로비에서 태극권을 추는 중년여성이 있는가하면, 전시실로 들어갈 때 전시를 보면서 과일,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도 꽤 많았다. 이에 대해서 현장직원은 “정말 이제 중국관광객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연 구자에게 한숨 쉬면서 토로하였다.

단체관광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시물을 볼 때마다 사진으로 담는 것이다. 박물관에서 상대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짧으니, 일단 무엇이든지 먼저 카메라로 찍어놓고 나중에 되돌아보고 선별하자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가이드나 안내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장직원에 따르면, 중국단체관광객은 사진을 많이 찍는 동시에 플래시를 끌 줄 모른다. 소리와 빛은 민속박물관을 조용한 실내 전시공간이 아니라 북적거리는 시장처럼 만든다.

Ⅲ. ‘우리’와 ‘그들’의 상호작용 및 갈등

1. 문화중개자 간의 공존 및 갈등

문화중개자와 관광객의 갈등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이드와 안내사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컴은 중개자를 두 문화 혹은 두 집단 사이의 인간관계에 공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Press 1968: 206 재인용).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이드의 해설 행위에는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한편, 가이드는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안내사는 해설과정에서 양쪽의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와 문화 지식을 관광객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즉, 안내사는 울프(Wolf 1956: 1075-1076)가 말하는 국가-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어 자문화를 중개할 때 한국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졌다. 울프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중개자는 두 민족국가 집단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과정에서 항상 긴장 속에 있다. 비록 울프는 국가-지향적 중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안내사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자민족 편에 두고 있고 자신이 느끼는 긴장과 역사문화의식에 대한 고민을 안내사 집단 안에서만 공유한다.

1) 해설 부탁과 해설 참고

인원수로 따지자면, 가이드는 하루에 수백 명이 박물관에 드나들지만, 안내사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접촉지대에서 가이드와 안내사의 관계는 안내사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는 안내사가 한국여행업협회 소속 직원이라는 점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안내사 제도를 만들고 나서 여행업협회에 등록된 회원사(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는 예약 절차를 통해 안내사와 연락하여 자신이 인솔하는 단체관광객을 정해진

시간대에 부탁할 수 있었다. 가이드 입장에서 안내사 섭외의 효과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안내사가 단체관광객을 인솔하는 동안 가이드는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내사의 존재를 통해 관광객에게 가이드의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사 C에 따르면 해설의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 앞에서 자기가 전문가를 모셔 왔다는 자체가 호감을 생기게 하는 일이다. 가이드 본인이 그만큼 해설능력을 갖추진 못해도,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는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가 단체관광객을 부탁할 때는 안내사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취한다. 가이드는 안내사가 인솔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안내사에게 음료수 등을 대접하기도 한다. 안내사는 가이드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다. 예컨대, 가이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전시실을 관광객에게 해설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이 언급하기 어려운 한국 특산물 등을 안내사가 해설 과정에서 언급해주길 요청한 적이 많다. 이에 어떤 안내사는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전시실의 선택에 있어서는 대부분 요청을 들어준다.

그러나 모든 가이드가 안내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닌다고만 볼 수는 없다. 가끔 가이드가 자신이 안내사를 부리는 직위라고 생각하여 무례한 행동을 보인 적도 있었다. 가이드 입장에서는 안내사 해설이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요청만 하면 쉽게 다 해설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예약 후 단체관광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안내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예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가이드도 존재하다.

가이드가 업무 시간에 안내사와의 만남은 대부분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외 시간에 박물관에 찾아와서 안내사의 해설을 들으려고 할 때는 안내사가 이에 대해 경계하는 양상이 강하게 드러난다. 앞 절에서 안내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가이드의 해설 오류는 여행업협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안내사는 가이드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다소간 맡고 있다.

가이드 중에는 업무 외 시간에 학습 목적으로 박물관에 와서 안내사의

해설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은 자신의 선배가 전수하는 해설이 박물관 현장에서 들리는 해설과 상이할 때 어떤 해설이 더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온다. 이때 예약 절차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가이드도 있지만, 대다수 조선족 가이드들은 중국관광객인 척하는 방식으로 들으려고 한다. 신분을 밝히고 들으러 온 가이드에게 안내사는 친근한 태도로 맞이하지만, 중국관광객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설명해 주지 않고 한국어로 설명해 준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안내사가 자신의 역할이 중국관광객을 위해 안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광객 이외의 사람들에게 단독으로 중국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내사 입장에서 조선족 가이드는 자신보다 중국어를 훨씬 더 원활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이드에게 중국어로 해설하면 오히려 내용을 풍부하게 알려줄 수 없고 상대적으로 서툰 중국어가 가이드의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 가이드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지만, 박물관 전시내용을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사의 해설을 듣는 것인데 한국어 해설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 때문에 조선족 가이드는 보다 완성된 중국어 해설을 듣기 위해 정기해설 시간에 중국관광객인 척하면서 박물관을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의 가이드 신분을 밝히면 안내사가 한국어로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Ⅲ-1] 한씨 조선족 가이드 준비생 남/참여관찰/2016.05.12.

한씨: 그냥 중국인으로서 듣는 건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내사 Z: 근데, 보면 다 티 나요. 가이드 분들은 이렇게 이마에 투명문구 “나 가이드요”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워낙 많은 가이드 분들이 오고 저희가 가이드 분한테는 한국어로 해 드려요. 제가 나쁘게 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대신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한씨(조선족 가이드 준비생, 남)는 예약 없이 정기해설을 들으러 온 조선족 가이드 준비생이다. 한씨(조선족 가이드 준비생, 남)와의 대화에서 안내사 Z는 그가 가이드인 것을 알아보고 중국어 해설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반면, 한국어 해설을 자세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대안으로 한씨(조선족 가이드 준비생, 남)를 설득하였다. 이때 한씨(조선족 가이드 준비생, 남)는 자신의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서 단순히 중국인으로서 중국어 해설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으나 안내사는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족 가이드와 비교되는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한국어 해설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관광객인 척하는 가이드가 자신의 콘텐츠를 몰래 녹음해서 도용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때로 그저 일반인 조선족 관광객에 대해서도 안내사는 계속 그가 가이드 준비생이 아닌지 해설과정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안내사와 가이드의 해설과정에서 가이드는 자신이 헛갈리는 부분, 혹은 이전에 중국관광객에게서 얻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안내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노선 구성을 밝히는 데에 더 주력하고 특히 가이드가 늘 간과해오던 부분을 짚어냈다. 해설과정에서 두 행위주체의 상호작용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일종이었지만, 실제로는 안내사가 가이드에게 가르쳐 주는 해설은 어디까지나 가이드의 자세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반대로 가이드가 원하는 해설은 중국어로 된 내용과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것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즉, 박물관 공간에서 문화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행위주체는 서로 공존하지만 자신의 역할 의식과 해설 내용에 관한 상이한 소견을 갖고 있다. 가이드는 안내사의 설명을 모두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채택하고 참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중개자 간의 갈등

안내사가 가이드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가운데, 언어 실력과 윤리적인 걱정에도 더해, 안내사가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가이드를 보면서 전시를 해설할 때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과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내사의 입장에서 가이드는 관광객의 비위를 위해 진정성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이드와 구별 지

어야 하는 것이다. 현지문화의 진정성이 상품화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서처럼, 안내사는 가이드가 박물관 전시의 진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2006년에 안내사의 제도가 생긴 이후 민속박물관은 “우리 민속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안내사가 모니터링한 가이드의 안내 오류 사례를 하나의 글로 실었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어 가이드의 문제는 첫째, 문화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타문화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타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이 해설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이는 자국문화 우월주의에 의한 타문화의 폄하로까지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화의 경중과 대소를 따지면서 자국문화를 우위에 두고 남의 문화를 폄하는 국수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것이 가이드의 엄연한 현실이자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장장식 2006: 81-82).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안내사가 밝혀내는 가이드의 역사왜곡과 사실오류는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공식 입장과 상충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안내사가 주장하는 해설의 진정성은 ‘지식의 정확함’,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비교할 때 우열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비교하는 태도를 갖춘 것이다.

그렇지만 안내사는 비합리적 관광시장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가이드의 해설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방송과 인력투입을 통해서 박물관도 안내사도 가이드를 소수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그들의 해설패턴을 바꾸려고 드는 것이다.

[사례 Ⅲ-2] 박씨 조선족 가이드 남/비공식 면담/2016.07.04

박씨: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안내사의 해설도 듣고,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도 하고, 스스로 배우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첨부하면서 사람의 레벨에 맞게 하긴 해요. 오늘은 엄마와 아이들이 많아서 해설을 못해요. 엄마들이 듣고 싶지만 아이들이 너무 징징거리면서 가고 싶대요. 저 같은 경우는 교포 가이드니까 한국역사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적어요. 우리도 인터넷 검색 자료를 대부분 이용하고 업데이트하는 거죠.

연구자: 자료는 한국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건가요?

박씨: 네, 왜냐면 관점이 다르면 얘기하는 입장이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국 쪽에서) 지금 부여에 대한 역사거나 고구려와 부여 영토분쟁 등등 한국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우리도 지적 받지 않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요새 우리를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정부 사람이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박씨(조선족 가이드, 남)는 박물관 현장직원과 친한 친구로서 연구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입장을 토로하였다. 그는 교포(조선족) 가이드라는 신분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해설한다고 하였다. 한국 뉴스에서 화교, 조선족 가이드가 역사왜곡이 심하다는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를 시작할 때부터 한국의 자료를 습득하고 해설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즉, 가이드의 행위에 대해 한국의 역사문화를 비하하거나 왜곡한다고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도 양국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씨(조선족 가이드, 남)는 한국의 입장보다 더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국 관광객의 수요라고 했다. 관광객의 특성을 살피고 적당한 시점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과 수준의 해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와 관광객 간 상호작용에서 우선 관광객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가이드가 생각하는 박물관 관광에서 해설의 진정성은 관광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을 알려주는 유쾌한 과정에 있다.

2. 문화중개자와 중국관광객의 상호작용

접촉지대에서 문화중개자는 서로 공존하되 갈등을 겪으면서 각자 중국관광객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들의 해설과정에서는 중국관광객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성이 드러난다. 이때 중국관광객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문화중개자가 보여주는 지식의 차이가 충돌을 일으킨다.

1) 역사문화의식 차이로 인한 상충

[사례 Ⅲ-3] 임씨 어머니 중국관광객(FIT) 여/서면 면담/2016.07.27

나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습관이 우리나라에서 유전(流轉)해 간 것을 확신해요. 물론 장기간 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지역조건에 적응하고 정착되고 나서 그들의 생활에 적합한 풍습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원천은 중화민족이념이 튼튼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예요.

임씨 어머니(중국관광객, 여)는 제1전시실에서 연표를 볼 때부터 의심을 품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몇 천 년 전 한반도의 역사는 한국의 독립적 역사가 아니라 중국과 융합된 부분이 있어 한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 그동안 발전해 온 문화의 형태와 삶의 습관도 중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 역사 5000년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처럼 중국관광객은 우선 보이는 유물, 문서, 도표 등에 기재하는 역사기원 문제에 대해 의식한다. 단체관광객에게 이러한 의식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단체관광객은 박물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30분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대강보고 다급히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익숙한 것이 보이면 금방 “이것은 중국에서 온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노년관광객은 한국이 고대중국의 일부이며,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Ⅲ-4] 최씨 인솔자 여 30세/심층면담/2016.0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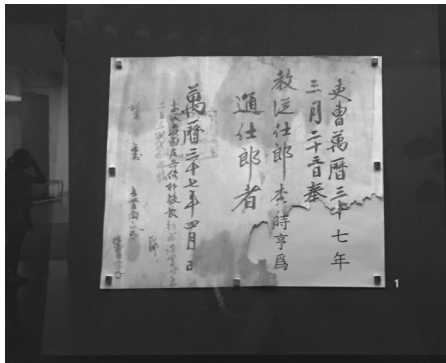
역사상 한국은 계속 중국의 번속국(藩屬國)이었으니까 문화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래서 그들의 민족 정서가 팽창(膨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예컨대, 손님들이 항상 하는 질문은 왜 어디가나 한자가 있어요? 왜 궁전 위에 각인된 이름이 중국고궁(故宮)과 같아요? [...] 만약 고궁의 문화를 안다면 가이드의 해설을 안 들어도 한국 경복궁의 격식과 그 당시의 역사적 지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고대제왕이 음양오행을 믿었어요. 13579는 양성을 뜻하는 숫자이고, 그중에서 9가 가장 커요. 9는 황제를 대표하는 숫자라서 대문에서 구구팔십일 개의 뜻이 있거나 대전(大殿)은 구와 오의 방 개수가 위주로 구오지존²⁷⁾(九五之尊)으로 표시해요. 그리고 고대에는 9를 함

27) 구오지위: 주역의 이치에 따라 임금의 지위를 이르는 말의 높임말. 네이버 국어사전, 최종접속일 2016.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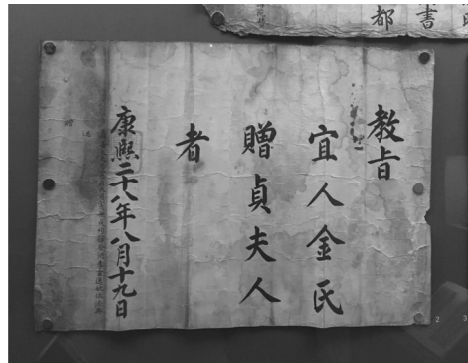
부로 쓰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의 신하는 집에서 753의 규칙으로 해요. 이 와중에 한국의 궁전을 봐요, 다 5개예요. 그때는 다른 나라인 것이 분명한데 번속국이란 개념도 인정해 줘야 해요. 조선시기 신의주(新義州)는 예전에 확실히 중국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 압록강을 선으로 신의주는 중국의 영토에서 뺏어요. [...]

최씨(인솔자, 여, 30세)는 인솔자를 하기 전에 2년 동안 천진 및 북경 시에서 현지 관광 가이드를 해 왔다. 중국 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할 때 배웠던 궁전과 역사지식이 한국관광의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번속국이란 개념에 대해서 여타 관광객보다 더욱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녀는 중국관광객이 자민족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관광객 및 중국인솔자 입장에서는 민속박물관이 한국민속문화를 전시하고 있으나 그중 많은 부분이 중국문화와 중첩되고, 이는 중국문화가 원천이며 한국문화는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전파론적 관점이 나타난다. 이런 전파론적 관점은 중국관광객의 원형의식을 드러낸다. 황홍휘(2006: 75)는 창덕궁에 찾아오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에서 자국 민족주의를 찾는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현상의 원인은 중국 국내의 역사교육에 있다. 특히 중국 고대사에 관한 역사교육이 빠른 통일, 다민족 융합, 문명발달과 국제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대 중국의 부유함과 강성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관점을 수용, 제화한 중국관광객의 역사문화의식이 박물관 관광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중국관광객을 상대할 때 가이드와 안내사는 서로 다른 심리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주로 갈등과 충돌이 빚어졌던 화제는 고대 한반도와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한자와 한글의 관계이다.

우선 고대 한반도와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 논란되었던 번속국 개념에 대해 가이드와 안내사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번속국에 대한 해설은 연호가 써져 있는 문서를 둘러싼 해설이다. 아래 두 그림을 보면 제3전시실의 가족 부분에서 전시된 문서에 명나라가 쓰던 만력(萬曆)과 청나라 쓰던 강희(康熙) 연호가 쓰여 있다.



[그림 Ⅲ-1]



[그림 Ⅲ-2]

[사례 Ⅲ-5] 신씨 조선족 가이드 남/참여관찰/2016.03.21

신씨: 한국인으로서 말하기 싫지만 변속국의 개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를 썼잖아요.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역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사회가 살기 좋잖아요. 과거엔 변속국이었지만, 그냥 조공을 많이 했죠, 좋은 물건들을 고려삼, 금, 미녀 등을 보냈죠.

[사례 Ⅲ-6] 이씨 조선족 가이드 여 26세/심층면담/2016.06.21.

중국관광객 중에 되게 열심히 따지는 분들이 제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를 가지고 끝까지 따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변속국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기분이 안 좋죠.[...]한국이 예전에 중국의 부속국이라거나 하는 말은 중국인이 들으면 좋아하겠지만, 또 한국인이 들었으면 매우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광지에선 한국 관광공사에서 자주 모니터링 나와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같은 것을 관찰하는 거죠 뭐. 사실 고대 서적을 뒤지면 변속국이란 개념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약간 식민의 느낌이 들어가서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종주국²⁸⁾(宗主國)이라고 해요.[...]

28) 자기 나라에 종속된 다른 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일부를 처리하는 나라.,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644000>> 최종접속일: 2016.09.11.

가이드는 안내사보다 중국관광객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 관광객을 관찰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일부 중국 관광객의 고집스러운 사고들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한다. 신씨(조선족 가이드, 남)와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는 모두 중국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번속국의 개념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신씨(조선족 가이드, 남)는 번속국 개념을 단순화시키고 현대사회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대신 이것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덧붙인다. 예컨대, 한국에서 쌍꺼풀을 가진 여성이 적은 이유가 조공할 때 쌍꺼풀 미녀들을 다 중국으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끼워 넣으며 관광객이 번속국 등 역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누그러뜨렸다.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는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무난하게 해설을 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박물관과 한국사회의 감시 아래 조선족 가이드가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가이드와 반대로 안내사는 번속국이란 단어, 특히 ‘속’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아래 안내사의 주장을 보겠다.

[사례 Ⅲ-7] 안내사 G /비공식 면담/ 2016.04.21

중국에서 배우는 역사와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지금의 만주(滿洲)쪽이잖아요. 지금의 한반도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제가 바이두(百度)²⁹⁾에서 검색해 봤는데 ‘제후국(諸侯國)’으로 나와요. 지방에 한 부분, 작은 형제국,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당연히 용납할 수 없어요.[...] 동북공정(東北工程)³⁰⁾은 동북의 역사를 다 중국으로 취급했었잖아요. 박물관 전시되어 있는 홍패에 써져 있는 연호가 중국과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에 하나의 외교정책이에요.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였잖아요. 사이 좋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고, 그래서 연호는 중국 꺼 썼어요.

29) 중국에서 가장 큰 국내 검색엔진.

30) 중국에서 2002년부터 진행한 역사연구 프로젝트이고, “동북국경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라고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삼성 같이 거행하였다(李國強, 2004).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책에서 보면 병진년 임진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 Ⅲ-8] 안내사 H /심층면담/2016.06.30

연호가 있잖아요. 명나라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중국의 제후국이었어요. 청나라는 아니에요. 병자호란 이후로는 완전히 항복을 했죠. 그래서 거의 청나라 황제를 모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군신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 박물관에서 보면 이제 만력(萬曆), 광서(光緒) 등등 중국의 연호가 나오잖아요. 중국 연호를 쓴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막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연호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연호는 뭐예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연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런 관계에서 조공이라든가 그런 것 있는데, 조공도 외교의 관계이고, 연호도 마찬가지였죠. 연호를 썼다는 것을 가지고 다 밑에 있던 나라냐 그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나중에 답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지금 중국 연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없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따지자면 북경 2008 올림픽, 왜 숫자로 썼을까요. 연호도 쓸 수 있는데, 중국이 서양국가 밑에 들어가나요? [...]

가이드가 한중 양쪽의 관점을 모두 알고 있듯이 안내사도 중국관광객과 자신이 배우는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신의 지식에 따르면, 연호는 단지 외교정책의 일종일 뿐이고 연호를 쓴다는 이유로 속국으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안내사 H는 이전에 해설 도중 중국인과 대화를 나눴을 때 연호가 번속국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는 자신이 견지하는 뜻을 표출하고 중국관광객과 타협이 불가능한 지점이다. 안내사 G에 따르면, 번속국에 대한 분쟁은 실제로 국토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안내사 I는 박물관 제1전시실 “최초의 국가, 고조선” 부분에 대해 해설할 때 한반도의 건국신화와 고조선 문화의 특징 및 분포를 설명한다. [그림 Ⅲ-3]을 보면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원모양의 표시는 같은 문화의 특징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안내사 I는 단군신화를 설명하면서 당시 고조선의 영토가 한반도 그 이상, 중국의 동북쪽도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관광객이 이런 설명을 믿지 않자 안내사는 “역사는 누구의 말로 따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객

관적인 자료와 수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안내사 I는 증거에 의하여 박물관이라는 기관을 대변하는 전문가의 행위성을 보여줬지만, 중국관광객은 안내사의 해설에서 자신의 지식을 확인하지 못해 그 지식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부인하였다.



[그림 Ⅲ-3] “최초의 국가, 고조선”

두 번째로 충돌되던 것은 한자와 한글의 관계이다. 우선 가이드의 사례를 보겠다.

[사례 Ⅲ-9] 서씨 가이드 여/참여관찰/2016.05.14

관광객: 여기 다 중국 글씨 아니에요?

서씨: 예전에 우리나라가 자기의 글자가 없어서 중국고대의 글자를 빌려 썼어요[...]지금의 한국 글자는 세계에서 가장 쉬우면서 과학적인 글자예요.[...]
[실제로 어떻게 발성하는지 관광객에게 시연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글자와 비교할 때 단점이 있죠. 표음글자이다 보니까 의미가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신문지에 원래 한자가 많았어요. 그것이 다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한자가 안 써져 있으면 우리도 어떤 의미의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관광객: 예를 들면 어떻게 불확실한데요?

서씨: 한국의 단어 중에 “배”가 있어요. “배”는 먹는 과일일 수도 있고[중국어로

과일 이름 알려줌], 몸의 일부[배를 만지면서]일 수도 있으며, 바다에서 운항하는 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맥락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관광객: 그렇게 번거로우면 왜 만들었죠?

서씨: 그때 우리의 한글은 말할 수 있지만 쓸 수 없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문맹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언어는 하나의 공동체를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관광객이 박물관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여기 다 중국어나냐”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보이는 유물을 통해서 한국도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언어를 보면서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하나는 이 집단은 우리와 일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이 집단이 우리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서씨(가이드, 여)는 우선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문의 사용에 대해서 “빌렸다”는 표현을 썼다. 그 다음에 한글의 수월한 면을 설명하면서 한문(漢文)의 위치도 밝혔다. 이는 중국관광객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중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각자의 장단점을 밝히는 것이다. 중국관광객은 한글과 중국어를 섞여 있는 문서를 보았기 때문에 한문이 원천이고 그것의 우수성이 한글을 창조할 때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보이는 유물에 대해 중국관광객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분석은 자국의 우월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한자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가이드와는 크게 충돌되지 않았다.

[사례 Ⅲ-10] 안내사 D/참여관찰/2016.03.21.

안내사 D: 중국인이 많이 궁금해 해요. 당시 중국한자가 그렇게 우수한테 왜 한국인이 굳이 한국어를 만들어야 하는지[...] 한자로 필기하는데 한글로 읽어요. 이것을 이독이라고 해요. 한자는 우리에게 ‘반(半)’의 문자예요[...] 세종대왕은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몇 년을 투자해서 발성기관을 모방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명인, 발명일자가 있는 언어예요. 그리고 한글을 발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쉽게 배우고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예요(易學易懂).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느낌이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두 언어의 본질과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중국어는 표의문자라서 한자를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한국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IT발달은 한글과 연관성이 많아요. 한글의 타자속도는 매우 빠를 수 있어요.[...]



[그림 Ⅲ-4] 제1전시실 한글창조 부분

같은 “한글의 발명”에 대한 해설이지만, 안내사의 초점은 가이드와 다르다. 가이드보다 안내사는 한글을 한자와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를 조명하여 한글의 창제 원인, 창시인, 창제 과정과 한글의 특징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일, 가장 등의 부사를 통해 한글의 우수함을 강조하였다. 가이드가 해설할 때와 유사하게 관광객은 안내사가 제시한 설명 중 한글이 중국과 체계상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표했다. 관광객에 따르면, 중국인의 개념체계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 병음(拼音)과 용법이 유사해 보인다. 가이드는 조심스럽게 한글과 한자의 장단점을 제시했지만, 안내사 D는 한글의 창조성을 드러내기 위해 체계상의 분리를 강조했다. 대부분 중국관광객은 안내사 D의 해설을 듣고 나서도 한국인이 처음에 한자를 빌려 쓰다가 한자에서 한글로 변형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한자에서 변형된 한글이 한반도에서 자리를 잡고 보편화되었다는 의식이다. 무엇보다 안내사 D의 입장에서 중국관광객은 한자를 자기의 재산처럼 여기고 다른 나라가 쓰게 되면 도용이거나 자기 문화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안내사는 추후 관광객과 대화에서 빌려쓰기와 도용의 차이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한문을 쓴다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와 동시에 안내사는 한글의 장점 및 필요성에 대해 조명하여 한글 발명의 위대함과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이런 면에서 안내사는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현상에 대해 명확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객관적 진정성은 중국관광객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관광객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 안내사는 답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이 전달하는 지식에 동의하지 못해 충돌이 일어난다.

위에 두 사례를 통해 1절에서 제시한 가이드와 안내사의 주장과 실제 해결할 때의 위치설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이드에게 박물관은 다른 관광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관광의 장이고, 관광객의 수요가 최우선이다. 안내사는 여행업협회의 직원이지만 해설과정에서 박물관을 대변하는, 즉 한국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더 강하다.

[사례 Ⅲ-11] 안내사 E /비공식 면담/2016.04.11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비교를 떠나서 너무 중국의 자대자만 빚대어 얘기하실 때 약간 좀 맥이 풀린 게 있죠. 분명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민족분야에서는 분명히 비슷한 것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을 다 그냥 중국의 것이다. 중국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있거든요.

[사례 Ⅲ-12] 안내사 F /비공식 면담/2016.03.11

일을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가끔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저한테 던져요.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에다가 처음부터 해설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역사의 민감한 문제는 이제부터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서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저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표정이 어두워진다].[...]

안내사와 관광객의 상호작용에서 관광객은 표면적으로 피드백을 표현하지 않지만 질문이나 표정과 말투는 안내사의 심리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관광객의 질문과 반응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안내사가 추구하는 바는 자신의 해설을 통해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거나 적어도 관광객이 자신의 해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관광객은 역사문화의식 측면에서 자신의 소견이 강하고 안내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안내사가 해설 내용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즉, 세계사에 대해 한국의 공식입장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주장이다. 이는 중국관광객의 생각과 부딪치고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였다. 반면 가이드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 사이에서 관광객이 자신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의 방식으로 무난하게 해설하기 때문에 관광객과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안내사는 이렇게 해설하는 가이드를 보면서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이드와 안내사는 모두 문화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해설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무엇과 누구를 위한 해설인지부터 의견의 차이가 있다. 안내사는 가이드의 행위를 보고 이들이 중국관광객과 한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가이드가 한국인의 입장을 알면서도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해하면서 그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관광객에게 안내사는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이드의 설명 방식이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역사문화의식으로 인한 상충은 문화중개자 대 중국관광객의 갈등이 아니라 안내사 대 ‘가이드와 중국관광객’이다.

2) 관광 행위로 인한 갈등

상기 분석하였듯이 상이한 역사문화의식으로 인해 안내사, 가이드와 중국관광객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나아가 중국관광객의 박물관에서의 관광 행위는 그들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다.

우선 비교 행위를 살펴보겠다. 앞 절에서 분석했듯이 관광객은 자신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에 오는 중국관광객은 한국의 역사문화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 내 한국의 역사문화가 지니는 위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는 자신이 해설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 모두 안 좋은 전쟁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본을 낮추면서 해설할 때 중국관광객이 좋아한다는 점을 활용했다. 또한 40-50대 관광객은 역사와 전쟁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이드는 제1전시실에서 역사와 전쟁에 대해 중국에서 배운 지식과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합쳐서 재미있게 대조하고 해설해 준다.

안내사는 중국관광객이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대비하려는 관점을 비판한다. 중국관광객과 가이드는 두 문화가 평등하고 독립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를 우위에 두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이드가 이 점을 이용해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역사문화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내사 J는 두 문화유산을 “크다, 작다”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 양국의 건국 이념이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자금성의 높은 담은 중국황제가 세계의 중심에 서있다는 동경의 표출이었다면, 한국에서 담을 낮게 짓는 것은 국왕이 백성을 위한 존재이어서 그렇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을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안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 관광객은 담을 낮게 짓는 것이 자원이 부족하거나 고대 한반도의 국가 위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안내사의 설명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였다. 요컨대, 비교 행위는 역사문화의식에 이어 지속적으로 세 행위주체 간의 갈등을 촉발했다.

또 하나의 충돌 지점은 바로 질문 행위이다. 이는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의의 측면이다.

[사례 Ⅲ-13] 이씨 조선족 가이드 여 26세/심층면담/2016.06.21

한국에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꼭 다른 사람에게 중국어로 말해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계속 말해요. 관광지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었죠. 아줌마들의 생각은 중국어를 잘하면 세계 어디 가든 통하는 법이란 거예요. 사실 외국에 나가면 가이드한테 중국어를 막 해도 되지만 관광버스 기사님도 그렇고 관광지의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어를 모를 수 있거든요.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는 자신이 데려온 관광객이 중국어로 한국인과 소통하려는 시도에 불만을 표하였다. 중국관광객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중국어를 질문을 던진다. 실제로 민속박물관에 중국인이 너무 많아 환경 자체가 외국 같지 않은 느낌 하에 관광객이 자기도 모르게 중국말을 하게 되기도 한다. 안내사가 일하는 동안 한복을 입고 있는 것과 중국어로 말한다는 것은 중국관광객의 시선을 끌었다. 이로 인해 안내사는 흔히 중국어로 말해진 질문들을 받는 대상이 된다.

중국관광객의 질문은 예의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안내사의 해설을 종종 혼란시키기도 한다.

[사례 Ⅲ-14] 안내사 K/참여관찰/2016.04.18

어떤 남자 중국관광객(안내사 K를 따라 해설을 듣는 관광객이 아니다)이 안내사 K에게 1전시실 마지막 부분 “영상으로 본 한국인”의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무슨 연도의 사진이냐고 물어봤는데 안내사 K는 다른 관광객에게 원래 하던 해설을 계속하는 중이고 남자 관광객을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영상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관광객은 계속 사진이 무슨 시기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안내사 K가 뒤돌아 영상을 봤다. 그리고 조선시대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애초에 남자관광객이 물어본 것은 개항 후 인물이었다. 그래서 남자관광객은 “당신과 말하는 게 참 힘들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당신이 하는 말은 나도 듣기 힘들어요.”라는 혼잣말을 하면서 1전시실에서 나가 버렸다.

이처럼 안내사의 해설과정에 개입하는 중국관광객이 존재한다. 그들은 안내사의 해설을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다. 안내사는 이런 관광객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한편 외국에 왔으면 국제 통용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안내사가 생각하기에 타당한 행위인데 중국인은 중국어로 곳곳에서 질문을 던졌다. 동시에 자신의 해설 흐름을 깨뜨리는 것이다.

[사례 Ⅲ-15] 안내사 L/비공식면담/2016.05.11

어떨 때는 맞아, 저희도 얘기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해야 흐름이 안 끊기는데 손님들이 궁금하신 거죠. 개인 손님은 딱 끊어서 얘기하더라도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어요. 단체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다른 분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관광객의] 제일 큰 불만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겠죠.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들었으면 얘기는 해 주고 싶어요. 한국어로 하면 그냥 이것이라고 해 줄 수 있는데, 머리를 한번 이렇게 거쳐서 흐름이 갑자기...그럴 때는 또 안타깝죠. 전달이 잘 되고 있는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예컨대 “왜”라고 물어볼 때 그걸 설명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딱 맞춰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중국어로]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제일 답답해요. 질문 들어왔을 때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전체가 아니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대답해요[...]

안내사 L는 중국관광객의 질문 행위에 불편해하면서도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시나리오만으로 모든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관광객의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선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에 자신의 직업이 날마다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했다. 또한 안내사 L는 스스로의 언어적 한계가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내사에게 중국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가 관광객과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광객 질문 중심의 해설 방식은 초점을 흐리고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이유로 안내사는 우선시하지 않으며, 자신이 안내사로서 준비된 콘텐츠를 중시했다. 즉, 안내사는 콘텐츠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신의 언어적, 지식적 한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답을 미루는 식으로 대처하였다. 반면에 관광객은 안내사가 박물관을 대변하는 공식 인물이기에 모든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다. 관광객들은 인터뷰에서 안내사의 언어적 한계보다 안내사가 자신의 질문을 무시했다는 것이 더 불만이라고 토로하였다.

요컨대, 질문 행위에 대해서 안내사는 자신의 언어적 한계와 관광객의

무례함을 함께 고려했지만 실제로 관광객 입장에서는 질문 자체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반응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내사는 자신이 고려한 바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있어 관광객의 이해를 얻기 힘들었다.

이에 비해 가이드는 관광객 질문 중심의 해설을 선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객과의 호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위에서도 검토했지만 가이드는 자신이 관광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이드는 관광객의 질문을 환영하고, 종종 준비된 해설 시나리오보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관광행위로 인한 갈등은 관광객의 비교 행위와 질문 행위로 인해 드러난다. 관광객의 비교 행위에 대해 가이드는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예를 들면서 관광객에게 설명하지만, 안내사는 가이드가 관광객의 비위를 맞추려고 정확치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무례한 비교를 막기 위해 문화는 우열, 크기, 깊이 등으로 따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분석했듯, 이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행위주체의 갈등과 충돌이다. 전시의 내용을 보면 제1전시실은 고조선부터 근대까지의 생활사를 다루고 제2전시실은 농경사회의 마을 모습을, 제3전시실은 조선시대에 한 개인의 일생을 보여준다. 여기서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은 보이는 유물을 중심으로 한 전시이며, 국가와 사회의 측면에서 전시되었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역사와 사회경관이 드러난다. 관광객은 보이는 유물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고 자신의 이해를 덧붙인다. 제1전시실은 한민족의 4-5천년 역사를 축소하고 포괄적으로 전시했기 때문에 문화중개자가 풀어가기에 어려움이 있고, 제2전시실은 박물관에서 가장 큰 전시실이고 농경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유물이 가장 많고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이다. 1, 2전시실에서 중국관광객이 비교적인 시각에서 유물에 관련 기술 차이를 질문할 때 문화중개자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안내사는 자신이 자세히 알지 못한 질문에 대답을 적게 했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대로 가이드는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중국관

광객의 수요를 먼저 고려하고 어떻게든 관광객의 질문을 답하려고 하며, 역사이야기를 무난하게 전환시켜 설명한다. 따라서 안내사는 가이드와 관광객의 관점이 같다고 인식했다. 이로 인해 제1, 2전시실에서 관광행위주체의 상호작용은 주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로 ‘가이드와 중국 관광객’ 대 안내사의 갈등구조를 보였다.

IV. 문화중개자의 전략과 세 행위주체의 타협

1. “한국인의 일생”관이 열어준 갈등 해소의 가능성

1) 문화중개자 사이의 타협

제1, 2전시실에서 겪었던 갈등을 바탕으로 문화중개자는 서로, 그리고 관광객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제3전시실을 중심으로 한 관람 코스를 시도했다. Ⅲ장에서 분석했듯 문화중개자에게 중국관광객이 1, 2전시실에서 역사사실과 유물의 기술수준 차이 등에 대해 많이 따지는 것으로 인해 문화중개자가 설명하기에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가이드가 처음에 1, 2전시실에서 3전시실로 전환한 것은 제3전시실이 1, 2전시실보다 위치 상 접근하기 더 편리하며 3전시실만 해설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림 Ⅱ-1]에서 제시하듯 제3전시실의 입구는 정문으로 들어와 바로 오른쪽 끝으로 가면 나온다. 관람이 끝나고 출구로 나오면 바로 화장실 및 로비가 보이기 때문에 때로 제3전시실이 민속박물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관광객도 있다. 짧게 다녀오는 단체관광객에게는 이렇게 전부를 다 본 것처럼 느끼는 것도 가이드가 원하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1, 2전시실의 거시적이고 무거운 이야기와 달리 3전시실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생여정이 어떤지 전시하기 때문에 가이드는 중국관광객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이드는 안내사가 자신의 해설을 주시하는 공식적인 시선 때문에 역사 얘기를 할 때 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에 피곤함을 느꼈다. 즉, 가이드는 제3전시실의 상대적인 역사의 부재로 인해 그러한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시간을 거듭하며 가이드는 선후배의 전수를 통해서 제3전시실을 박물관 관광의 모델을 정착시켰다.

가이드 행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안내사에게 영향을 끼쳤다. 우선, 최근에 해설을 예약한 가이드에게서 단체관광객을 인솔 받을 때 가이드가 제3전시실만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때마다 안내사는 선택권이 없이

제3전시실에 갈 수밖에 없었다. 문화중개자의 인솔로 제3전시관은 단체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관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의 정서와 맞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이라는 여러 담론이 박물관에서 형성되었다.



[그림 IV-1] 아침 10시 반에 제3전시실 앞으로 몰리는 중국단체관광객

이러한 담론은 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안내사를 교육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안내사를 박물관 현장으로 투입할 때 제3전시실의 시연부터 진행하고 제3전시실의 해설이 익히지면 우선 투입되는 식이 되었다. 제1, 2전시실 해설은 나중에 검사를 받기 때문에 새로 온 안내사이더라도 제3전시실 해설을 가장 유창하게 한다. 안내사는 박물관 교육을 받을 때와 평소의 업무과정에서 제3전시실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해설하는 데에 더욱 여유롭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이드와 안내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인의 일생의례를 알려주는 것에서 재미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 IV-1] 권씨 조선족 가이드 여/비공식 면담/2016.04.13

연구자: 3관에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권씨: 3관은 우리 한국인의 풍토인정³¹⁾(風土人情)의 관이에요. 1, 2관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유물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선사시대에서[...] 예를 들면, 청동기, 석기 시대를 말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 한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3관을 보는 것이에요. 3관은 일생을 총체적으로 전시하잖아요. 또 무형적인 문화를 설명할 때 단지 물건이나 마네킹을 통해서만은 관광객은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는 해설이 재미있고 관광객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권씨(조선족 가이드, 여)는 한국에서 10년 경력의 중국어 가이드이다. 그녀는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분석한다.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지식으로 제1, 2전시실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제1, 2전시실은 유물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스스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에 비해 제3전시실은 고의적으로 배우는 지식보다 경험으로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씨는 중국대중관광객이 이해할 수 있고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한국의 특색과 풍습이 담긴 관이 제3전시실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IV-2] 안내사 M/심층면담/2016.06.30

우리나라에 온 중국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딱딱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다른 것 몰라도 저도 그 역사의식이라든가 성격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을 긴장을 많이 했는데...중요한 것은 나하고 만난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거예요. 관광의 목적은 행복. 한 관광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강의를 해마다 듣거든요. 관광은 왜 해요? 해설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딱 쳤어요. “아 행복

31) 지방의 특색과 풍습. 풍토와 인심., 네이버 중국어 사전,
<<http://cndic.naver.com/search/all?q=%E9%A3%8E%E5%9C%9F%E4%BA%BA%E6%83%85>>, 최종접속일 2016.10.15.

하려고 하는구나”,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모시는 손님들까지도 행복해야 하는 거라서 이 여행사 가이드들도 내가 가이드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많았는데, 손님을 돈으로 보면 자기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가이드만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사도 제3전시실에서 자신이 해설을 하는 데에 의미를 찾았다. 즉, 1, 2전시실에서 역사사실 등을 둘러싼 지식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3전시실에서는 관광객에게 의미 있는 해설을 통해서 관광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안내사 M는 제1, 2전시실에서 관광객과 많이 싸웠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그 무렵과 달리 최근 들어 제3전시실을 위주로 관광객을 상대할 때 자신의 해설이 중국관광객을 유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안내사 M이 말하는 행복은 실제로 가이드와 유사한 서비스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가 추구하는 것 같이 관광객의 수요를 자신의 해설에서 중요한 요인이자 목표라고 깨닫는 것이다. 요컨대, 두 문화중개자는 모두 제3전시실에서 추구되는 것의 의미를 둘러싼 해설이라고 보았고 이 점에서 서로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2) 라이프 그룹(life group)-맥락적 전시의 중요성

공간의 편리성과 역사의 상대적 부재 외에도 문화중개자에게 의미를 추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은 제3전시실의 특수한 맥락적 전시방식이다. 보아스가 베를린의 왕립 민속학 박물관(Royal Ethnographic Museum in Berlin)의 북서해안 인디언 홀(Hall of Northwest Coast Indians)에서 실천한 것은 맥락적 전시방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실천에는 전시의 과정에 대한 철학이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관람자의 주의를 끌고 전시의 산만함과 지루함으로 인해 주의를 잃어버린 것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라이프 그룹(life group)은 그가 다양한 지역적 및 맥락적 의미와 기능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나왔다. 라이프 그룹은 각각 전시된 집단이 한 부족 혹은 가족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의 문화현상들을 전시하는 것이다. 즉, 시대순 및 기능별 등으로의 분류 방식에 비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해당 그룹 안 사람들의 의식주, 공예, 의례 활동 등을 하나의 완전체로 전시하는 것이다. 보아스는 이러한 전시방식이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Jackins 1985: 97-111).

제3전시실의 전시방식은 보아스가 주장하는 라이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보다 권씨(조선족 가이드, 여)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재현한 것이 많다. 무형적인 문화를 전시하기 위해 제3전시실이 채택하는 방식은 각 주제별로 마네킹을 이용해 여러 다양한 문화 현상을 묘사하는 장면 재현이다. 그 장면들과 함께 음성, 동영상, 그리고 문서와 소량의 유물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교육상황을 전시하기 위해서 서당 일부에 마네킹을 설치하고, 선생이 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목소리를 음성으로 동시에 틀어준다. 원래의 맥락을 가져와서 재현하는 것이다. 관람객은 유물 중심의 전시에 비하여 이러한 라이프 그룹에 신선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공감하였다.

[사례 IV-3] 안씨 중국관광객 여/비공식 면담/2016.04.08

3관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평소의 삶과 더 긴밀한 것 같아요. 어떤 물품이나 장면의 재현을 보고 금방 자신과 연관을 시켜 연상하기 시작하거든요. 돌잡이는 나도 했는데, 회갑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보는 즉시 대조하면서 옛날의 기억을 찾게 돼요.

[사례 IV-4] 송씨 중국관광객 여/동영상 면담/2016.06.15

자신과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는 좀 먼 느낌이에요. 개인이란 단위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삶을 여기서 전시된 한국인의 삶과 대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여정은 다 비슷비슷해요. 당신이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결혼은 할 확률이 높잖아요.

두 사례에서 중국관광객은 모두 자신과 가깝다는 공감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는 우선 재현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두 관광객이 맥락적 전시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씨(중국관광객, 여)는 제3전시실 전

시 자체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재현 장면과 자신을 즉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송씨(중국관광객, 여)는 맥락적 전시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크루와 심스(Crew and Sims)는 이념 중심의 전시는 전시자가 사회역사적 조사를 통해서 유물을 다시 맥락화해서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Crew and Sims 1991: 159-175). 제3전시실은 II장에서 제시했듯, 유가사상이라는 이념을 둘러싼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의 일생을 주제로 나타난다. 이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객은 ‘한 개인’의 삶을 보게 된다. 두 관광객은 모두 개인이라는 단위로 전시하는 것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다. 송씨(중국관광객, 여)에 따르면, 개인을 전시할 때는 비교적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또한 제3전시실을 통해서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의 일생의례의 장면과 자신이 겪었던 의례를 비교하며, 자신의 과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씨(중국관광객, 여)가 말하는 것처럼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제2전시실에서의 농기구들에 대해 공감하겠지만 자신처럼 어릴 때부터 계속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생의 여정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혼례, 상례 등등을 경험한 적 있거나 경험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관광객은 이웃나라에 대해 국가와 사회보다는 그 나라 사람의 일생과정에 대해 더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다. 라이프 그룹의 재현 방식은 그러한 개인의 일생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박물관 관광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부딪치는 것에 비하여 이국적인 개인에 대한 상상력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공감 지식만으로는 내용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재현 장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제1, 2전시실보다 제3전시실에서 문화중개자의 해설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2. 상이하지만 상충되지 않는 ‘의미’의 구축

문화중개자는 제3전시실에서 한 개인의 일생 이야기를 스토리 라인을 짜

서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표출한다. 제1, 2전시실에서는 문화중개자가 특정한 역사 사실이나 유물의 용도 등을 자신에 체화된 지식을 관광객에게 전달하였다면 제3전시실에서 문화중개자는 자신의 믿음, 알고 있는 전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기승전결의 이야기로 담아서 관광객에게 표현한다.

1) 문화중개자의 상이한 스토리텔링 전략

(1) ‘진정한 한국인’의 경험으로서 스토리텔링

에이피와 웅(Ap·Wong)은 가이드의 해설 작업이 관광객의 경험형성과 관광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특히 가이드의 중개역할에서 자신의 경험을 관광객에게 말해줌으로써 관광객과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Ap·Wong 2001). 민속박물관에 찾아오는 가이드는 제3전시실에서 우선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한다.

Ⅱ장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현재 박물관에 들어오는 가이드들은 90%가 조선족 가이드이다. 연구자가 실제로 만났던 61명 가이드 중에 56명이 조선족 가이드였다. 이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여기고 제3전시실에서 ‘진정한 한국인’의 생활경험을 중국관광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례 IV-5] 유씨 현장직원 남/비공식 면담/2016.05.11

조선족 사람들은 이 두 개를[두 개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이드의 경우는 여기서 중국인은 외국인이잖아요.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못 믿을 수 있으니까...아예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여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사례 IV-6] 최씨 인솔자 여 30세/심층면담/2016.06.25

최근에 한국인 가이드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국에 오는 중국인이 많고, 중국인과 손을 잡은 회사는 대부분이 중국회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 가이드는 중국인에 대해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티가 나요. 정말 한국인 가이드는 말이 많지 않아요. 말이 안 많다는 것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할 내용이 많지 않단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掙一掙³²⁾’란 단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거든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더 많은 이해를 구했을 텐데요. 가이드를 보면 손님과 얘기할 때 외국인 톤으로 말해요, 막상 조용한 데에서 전화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혹은 일정 끝나고 다른 가이드와 얘기할 때 동북 사투리가 나올 정도로 중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지난 번에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너무 말하기 싫어서 갑자기 자신이 중국말을 잘 못한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고 해서 나를 쳐다봐요. 나보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유씨(현장직원, 남)에 따르면 조선족 가이드는 국적이 중국이면서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체성 안에서 상황에 따라 특정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와 동시에 그는 박물관에서 해설할 때 가이드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관광객에게 더욱 신뢰감이 생긴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현정은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특정 집단의 고유한 내재적인 것보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적 구성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현정 2001: 96). 박물관에서 해설할 때 조선족 가이드는 역동적인 정체성에서 한국인과 같다는 쪽을 선택한다. 최씨(인솔자, 여, 30세)도 역시 유씨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최씨(인솔자, 여, 30세)는 인솔자로서의 직업 경험을 통해서 조선족 가이드가 일부러 한국인인 척한다는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조선족 가이드가 가이드로서의 일부 업무를 인솔자에게 넘기고 싶을 때 일부러 자신의 한국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선족 가이드가 자신의 직업 범위 안에서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 더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3전시실에서 해설할 때 조선족 가이드는 더욱 ‘우리 한국인’이

32) 정리하다, 다듬다의 중국어 구어.

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혼례, 치유, 제사 등 파트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경험에 진정성이 있고 중국관광객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출하고 싶어한 것이다.

[사례 IV-7] 홍씨 가이드 남/참여관찰/2016.04.30

홍씨: 한국의 전통혼례는 촌에서 가장 명성(名望) 있는 노인이 사회보고, 자식이 많고 행복한 집의 어머니가 신부의 들러리(伴娘)를 해요. 왜냐면 그들처럼 행복해야 해요. 현재 한국 가정에는 서양식 결혼식으로부터 전통혼례까지 포함해서 해요. 30분 서양식, 밥은 뷔페, 전통한복은 부모님께 절을 할 때 입어요. 나는 전통혼례를 했어요. 돈이 덜 들었어요. 친척이 여자 집에서 꼭 가져와야 하는 것들-고려인삼이에요.

홍씨는(가이드, 남) 해설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는 결혼 사진을 관광객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관광객은 전시물을 자세히 보는 것보다 가이드의 설명과 사진에 더 관심이 보이고 몇 명의 어르신이 결혼비용과 혼전 예절 등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는 혼례를 설명할 때 자신이 한국에서 참여했던 서양식 혼례와 자신이 경험했던 전통혼례를 관광객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전시물을 규범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관광객에게 한국의 혼례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례 IV-8] 전씨 조선족 가이드 남/참여관찰/2016.03.30

전씨: 여기 앉아서 냄새를 맡으세요. 약초의 향기 진하죠? 여기는 바로 옛날의 약방이에요. 중국엔 중의학이 있으면 한국은 한의학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중국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런데 국내에 약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속 중국에서 가져와야 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어요. 한의학의 기초는 <동의보감>이에요.[...] 한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방이에요. 한국의 청소년들도 홍삼 먹고, 돈이 있는 사람은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요.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늙어가요. 중년쯤 되면 찾아와야 할 것, 찾아오지 않은 것도 다 찾아와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요. 이 보험은 40세 이후 개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검진고지서예요.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가야 해요. 위, [***]...암[여러 병명을 열거한다] 연말

에 검사하러 가야 돼요. 다음 번 또 안 하면 벌금 30만원이에요. 이것 다 우리나라의 의학기술과 체제가 완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매우 신경을 써요.[...] 한마디로 운동을 좋아하면서 건강약품과 의학 체제를 잘 보완하고 있죠.

전씨(조선족 가이드, 남)는 “치유” 부분에서 우선 사람들에게 진짜 약초를 담긴 서랍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라고 하였다. 일부 약초의 종류는 중국과 유사하지만 중국관광객이 익숙하지 않은 약초도 있었다. 전씨(조선족 가이드, 남)는 한의학이 한국인에게 알맞은 약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면서 전시되어 있는 <동의보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주변 한국인이 건강에 대한 태도, 운동의 습관 등을 관광객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 전씨(조선족 가이드, 남)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설명을 통해서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여기서 생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위 사례를 통해서 가이드의 스토리텔링은 지정된 전시 자체에서 벗어나 많은 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인생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혼례, 치유뿐만 아니라, 제사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많이 담았다. 대부분 조선족 여성 가이드는 제사상 전시에 대해 간략한 음식의 배열순서와 음식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바로 “한국여자가 힘들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중에 꼭 짚어낼 점은 “한국에서 장남이 장가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말머느리가 제사를 맡아야 해서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한국여자는 준비만 하고 먹지를 못한 채 음식은 다 남자들이 먹게 되는 내용을 생생하게 구사하였다. 현상을 묘사하고 나서 한국사회는 중남경녀(重男輕女)의 사상이 매우 심하고 재산이 장남에게 모두 주고 제사도 당연히 그 사람의 가정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말하는 가이드 중 대부분은 결혼이주 여성들이고 이주여성이라는 배경에서 제삿일이 더욱 힘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이야기는 제사 부분 해설의 정형적 텍스트로 가이드끼리 전해져 왔다. 일부 가이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경험한 것처럼 표현한다. 요컨대, 가이드

는 제3전시실에서 자신의 한국인으로서 경험을 스토리텔링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2) 객관성과 차이점을 강조한 스토리텔링

가이드는 생활경험을 스토리텔링에 반영하지만 안내사는 자신의 개인 경험을 스토리텔링에 넣는 것을 조심한다. 무형적인 문화를 두고 설명하더라도 전시 자체에서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스토리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앞 절에서 논의했듯 제3전시실의 주제와 재현방식의 특수성에 따라 안내사는 관광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 제1, 2전시실에서 하던 것처럼 사실에 대해 증거를 나열해서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문화현상을 재현하는 데에 객관적인 요소, 즉 의례의 절차, 풍속의 양상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또한 1, 2전시실에서 관광객의 비교 및 질문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안내사는 제3전시실에서 자신만의 비교 기법 및 관광객의 질문을 끌어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안내사의 비교는 우열과 크기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3전시실에서 전시된 풍속과 중국 간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안내사는 문화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한다.

안내사가 제3전시실에서 해설할 때 주동선과 부동선이 있다. 제3전시실에서 1, 2전시실처럼 역사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족” 부분이다. “가족” 부분의 전시는 상설 자료를 전시하지 않고 간격을 두어 다양한 성씨의 족보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한다. 전시의 교체로 인해 해설을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안에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가 달려 있는 문서가 많다. 따라서 안내사는 가족 부분을 부동선에 넣는다. 즉, 안내사는 제3전시실에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기 위해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관혼상제를 주동선으로 보여주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첫째로는 전시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³³⁾을 인용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문화현상에서 나오는 의례 절차

33) 안내사가 책, 혹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근거 있는 ‘설’을 뜻한다.

설명과 사용되는 물품에 의미를 부여한다.

먼저 안내사는 음양오행설을 이용해서 신방, 금줄, 혼례 등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제3전시실 도입부 “신방”에 대한 해설이다.

[사례 IV-9] 안내사 N/참여관찰/2016.04.13

안내사 N: 여기는 신방(洞房)입니다. 제책못을 이용해서 병풍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색깔입니다. 이불에 녹색과 홍색은 음양의 원칙으로 배치되어 빨간색은 벽사의 역할을 하고, 녹색은 오행에서 목(木)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목성을 지니고 있는 계절은 봄입니다. 봄은 어떤 계절인가요? 만물복수(万物复苏)의 계절이잖아요. 둘이 방금 결혼해서 새로운 사회관계가 시작하는 뜻입니다. 또한 홍색과 녹색이 결합해서 또 부부의 화목을 대표해요. 상친상애(相親相愛)를 뜻합니다.

관광객: 머리는 꼭 녹색 이쪽이어야 하나요?

안내사 N: 맞아요. 이불도 신부의 한복처럼 상단 짧고 하단 길고, 왜 음이 위에 있냐면 교태전에 가 봤어요? 천이 양이고, 땅이 음인데, 천을 밑에 두면 양기가 상승하여 순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안내사 N는 신방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불의 색깔이라고 관광객에게 가르쳐 주었다. 안내사 N에 따르면, 이불의 색깔 분류도 한복과 같이 음과 양의 조합을 뜻하고 양이 밑에 있다는 것을 음양의 순환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색깔을 설명을 결혼이라는 행위와 연결해서 새로운 사회관계의 시작을 뜻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가이드와 대조되는 혼례에 대한 해설을 보겠다.



[그림 IV-2] 혼례 장면

[사례 IV-10] 안내사 Q/참여관찰/2016.04.17

안내사 Q: 여기는 신부집의 정원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마을사람입니다. 혼례는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째는 신랑이 신부집에 나무기러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 서로 절을 하고 이 절은 교배례라고 합니다. 3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합환주(交杯酒)를 마십니다. 신랑과 신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사회자이고, 음양에 따라 신랑은 동쪽에 서 있고, 신부는 서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수탉과 암탉을 놓았는데, 수탉은 부지런함을 뜻하고, 암탉은 알을 많이 낳는 뜻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식탁의 구석에 술잎과 대나무잎이 있는데 이 식물들은 계절이 지나도 청색이 변하지 않아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혼례의 복장을 보세요. 신랑은 관복을 입고 있어요. 단체관광객: 왜 신랑이 관복을 입어요?

안내사 Q: 질문 잘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혼례를 인생의 첫 번째 경사라고 여겨서 국가도 관복을 입는 것을 허락합니다. 신부가 입는 복장은 공주의 복장이예요. 당시 남자마다 관직을 얻고 싶었는데 관직에 올라가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대신 남자는 인생에 최소 한 번은 관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랑관(新郎官)이죠. 전통의 한국사회에는 남자와 여자는 자유연애 못해요. 다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부모의 명이요, 중매쟁이의 말이라(父母之命, 媒妁之言).

혼례에 있어서, 안내사 Q는 우선 음양오행설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서는 위치를 밝히고 동쪽은 양을 뜻하고, 서쪽은 음을 지칭한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한다. 신랑과 신부가 서는 위치뿐만 아니라, 혼례상의 술병과 바가지 술잔의 위치도 음양오행설에 따라 배치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음양오행설을 이용해 인물의 위치와 물건의 배치를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례의 절차와 세부적인 물품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가이드가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해설하는 것에 비해 안내사는 자신의 경험을 신중하게 여기고 대부분 상황에서 개인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말할 경우에는 전에 반드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명시하고 객관적 진정성을 계속 추구하였다.

설에 따른 설명과 절차 및 물건 설명을 제외하여 안내사 Q는 관광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의 속어와 관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이는 중국관광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인이 듣기 편안하고 재미있는 중국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즉 안내사가 제3전시실의 스토리텔링은 객관적 진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어휘선택 및 내용 선택에 있어서 전보다 더 가볍고 대다수 중국관광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안내사는 중국의 속어와 관용어를 사용하며 중국관광객에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제1, 2전시실의 경험을 통해서 중국관광객이 비교하는 것과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선 제3전시실에서 관광객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는 관광객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들이 해설대상의 의미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전략이기도 한다.

[사례 IV-11] 안내사 R/참여관찰/2016.04.19

안내사 R: 이것은 중국에서 말하는 피마대효(披麻戴孝)³⁴⁾입니다. 부모가 돌아가

34) 피마대효: 상복을 입고 허리에 삼끈을 매다. 여기서는 “삼년상”을 뜻한다.

시면 아이가 3년 동안 경야해야 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신 부모는 모친인가요 부친인가요?

장녀: 부친이죠?

안내사 R: 맞아요. 두 곳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영패의 모양, 그리고 상자의 지팡이로 구분이 돼요. 천원지방(天圓地方)에 따르면, 부친상은 원형의 대나무로 만들고, 모친상은 방형의 느티나무로 사용합니다. 하늘은 양을 뜻하고, 땅은 음을 뜻해서 그렇습니다. 3년 끝나고 부모의 영패를 사당으로 옮기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상례에 대해 안내사 R은 중국인이 익숙한 피마대효의 개념으로 도입한다. 삼년상을 한다는 것은 중국인에게 낯설지 않은 옛 의례이다. 그저 삼년상의 진행과정을 해설해보면 중국관광객이 지루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안내사 R은 중국관광객에게 새로울만한 지식에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것이 바로 부친상과 모친상의 구분 방법이었다. 관광객은 위패에 써져 있는 한자를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지만 안내사 R은 천원지방설로 상주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둘러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과 양상을 결합하는 방식은 여기서 안내사의 스토리텔링 특징이다.

질문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안내사는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문화현상(의례양상)에 대해 차이점을 강조한다.

[사례 IV-13] 안내사 T/참여관찰/2016.03.21

안내사 T: 중국과 한국의 혼례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누구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느냐의 문제예요. 서옥제(婿屋制)는 예전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신랑이 여성집에서 몇 년을 일하다가 자신 집으로 돌아간다는 풍속이예요.[...] 아까 잊어버렸는데 신랑 앞에서 말을 타는 사람 안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걸 뭐예요?

임씨 어머니: 원앙이죠!

임씨: 아니예요, 원앙은 왜 한 마리만 있을 수가 있나요? 오리에요.

안내사 T: 원앙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예요. 나무 기러기예요.

안내사 T: 원앙은 경북궁도 있었는데 평소에 은애하면서 같이 다녀요. 근데 한 쪽이 죽으면 다른 한 쪽은 빨리 또 다른 짝을 찾아요. 우리는 기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기러기는 짝이 죽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살아 있는 기러기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로 됐어요. 신랑이 나무기러기를 장모에게 건네주고, 장모는 방에다 던져요. 서 있을 수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니면 여자를 뜻해요.



[그림 IV-3] 나무 기러기



[그림 IV-4] 친영 장면

[사례 IV-13]에서 제시하듯이 안내사 T는 혼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혼수용품, 특히 상징물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중국 전통혼례에서의 상징물은 원앙이고 원앙 모양의 자수나 나무 원앙을 신방에서 배치하는 것이 혼한 일이었다. 관광객은 원앙이 즉 사랑, 부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안내사 T는 이점을 파악해서 한국의 독특한 나무 기러기에 대해 해설하는 것이다. 기러기의 모양이 원앙과 닮아서 처음에 관광객은 자신의 정형적인 생각에 원앙이라고 하였는데 안내사 T는 기러기의 상징적 의미를 원앙과 비교하는 식으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만족시켰다. 이 과정에서 안내사 T는 나무기러기의 모양에 대한 기술을 떠나서 나무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오래된 설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 있다.

혼례장소는 안내사 T가 혼례를 설명하는 데에 또 하나의 초점이다. 관광객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전통혼례는 결혼식을 남성의 집에서 거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내사 T에 따르면 한국전통혼례는 고구려 시대부터 여성의

집에서 거행하였다. 관광객은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혼례같은 중요한 행사를 여성집에서 거행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이런 의문을 헤아리기 위해 안내사 T는 고구려 시대부터 서옥제가 유행했던 것이 여성의 집에서 혼례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 밝힘으로써 관광객의 의문을 풀어주었다.

상기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제3전시실 안내사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관광객은 점차 한국의 전통문화가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제3전시실에서 전시된 이념이 중국과 같을 수 있으나 의례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다른 모습으로 정착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중국관광객과 타협할 가능성이 발견된다.

문화적 차이점 비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스토리텔링은 “굿청”에 대한 해설이다. “치유” 파트는 “약방”과 “굿청”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다수 가이드는 “약방”에 대해 해설하고 안내사는 “굿청”을 조명한다.

[사례 IV-14] 안내사 U/참여관찰/2016.04.20

안내사 U: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초자연의 힘을 믿어요. 무속을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부적을 몸에다 붙이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의 사회분위기하에는 봉건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분들은 민속측면에 공헌이 커요. 이분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뭘 부를까요? 대개 민간문학작품을 불러요. 민간문학작품은 보통 문서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민간문학의 창시자이자 전승자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굿을 잘하는 사람에게 무형문화재를 지정해 줍니다.

관광객1: 이것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사 U가 고개를 끄덕인다.

관광객2: 아직 있어요? 많소사.

관광객3: 이것 집에서 자주 해요? 이것 합법적이에요?

안내사 U: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특별히 말한 것 없어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런 활동을 거행하는 데에 있어서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인 집에서는 거의 안 하죠. 보통 상인들이 회사를 위해서 이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내사 U는 한국의 무당 활동을 중국의 도대신(跳大神)과 대조시켰다. 도대신은 만족(滿族)의 민간 제신 활동이다. 만족의 민족종교는 샤먼교(薩滿敎)라고 하는데, 샤먼교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부락종교에서 민족종교로 변화하고 계층사회에 들어와서 정치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모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샤먼교는 여전히 애니미즘에 바탕을 두어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 도대신이라는 행사는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족내인(族內人)을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축복을 기원한다(劉厚生 1993). 중국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도대신을 기타종교와 같은 위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박물관에 오는 한족(漢族) 관광객이 도대신을 듣자마자 떠올리는 것은 봉건미신이다. 안내사 U는 이런 관광객의 관점을 이해하는 말투로 한국과 중국이 정치이념이 다름에 따라 중국에서 미신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소중한 민간종교, 심지어 무형문화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중국관광객은 처음에 이런 현상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놀라운 심정을 표현했으나, 안내사 U에게 확인 질문을 하면서 상세한 해답을 듣고 나서 이해했다. 이와 동시에 비슷한 문화도 이웃사회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요컨대, 제3전시실에서 안내사는 질문과 비교를 통해서 이전에 중국인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점을 보완하였다. 중국관광객은 안내사의 전략, 즉 스토리텔링의 객관성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1, 2전시실에서 깨닫지 못한 “유사한 문화현상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안내사가 구축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안내사와 제1, 2전시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타협적인 측면도 같이 드러났다. 이런 과정에서 안내사는 1, 2전시실에서처럼 지식의 정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토리텔링이 관광객에게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2) 유가사상을 둘러싼 의미 구성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상이하지만, 서로 충돌되지 않았고 관광

객과의 해설과정에서도 타협이 이루어졌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의미의 구축은 또한 제3전시실의 중심이념인 유가사상을 활용해 타협을 이뤄낸다. 유가사상은 제3전시실의 중심이념이자 중국관광객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다. 문화중개자와 중국관광객은 우선 유가사상이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출발점을 갖고 상호작용한다. 문화중개자는 조선 시대에 넘어온 유가사상이 한 개인의 일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단계나 의례는 교육, 환갑, 제사 등 측면이라고 제시한다. 그런 유가사상이 담긴 전시대상에 대해 스토리텔링할 때 가이드와 안내사는 또 다시 차이를 보인다. 가이드는 현대사회와 연관지어서 해설하지만 안내사는 유가사상이 어떻게 조선시대에서 적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위 절에서 가이드가 ‘한국인으로서의 진정한 경험’을 구성할 때 현대사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펼쳤던 전략처럼 가이드는 유가사상을 해설할 때도 그것이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현대한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다.

[사례 IV-15] 김씨 한국인 가이드 남/심층면담/2016.07.07

제3관에 들어가면 첫 번째 지나가고 두 번째 쪽 지나가다가 유교사상과 관련된 전시가 있어요. 삼강오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제 유교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유교의 뿌리가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문화대혁명 때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손님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유교문화 이때는 되게 중요시 여겼고 지금은 한국사회에서 많이 남아 있다. 그게 되게 필요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럼 유교가 뭐냐? 그럼 이제 박물관에서 “삼강오륜”부터 얘기하죠. 손님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유교문화는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공자를 아냐? 여러분 공자 다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현대문화가 바로 유가사상이에요. 유교문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국인의 일상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할 때 항상 절하고 추석명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티비를 보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나는 계속 티비를 볼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잘 다녀오셨어요?’ 아빠한테 인사 한번 하고, 이것이 바로 유교문화예요.”

“교육” 파트에서 제시한 내용은 “삼강오륜”, 즉 [그림 II-6]에서 보이는 것처럼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義廉恥)” 8개의 그림글자로 전시되었다. 처음에는 그림에 있는 한글자 반그림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공자를 언급하면 중국관광객은 금방 무엇을 전시하고자 하는지 파악한다. 김씨(한국인 가이드, 남)의 해설 포커스는 효와 예의에 있다. 그는 이를 현대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연결하여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꼭 알아가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효와 예의의 측면은 한국보다 이미 많이 쇠퇴했기에 중국관광객은 그것을 들으며 꼭 새롭지는 않지만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관광 오면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가사상 해설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반면에 안내사는 유가사상에 대해 설명할 때 전시물, 즉 그림에 바탕을 두어 그림과 관련된 고대 우화를 관광객에게 알려준다.

[사례 IV-16] 안내사 W/참여관찰/2016.04.06

윤리교육, 문자를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집안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효를 맨 앞에서 세웠어요. 충보다 더 앞에 있는 ‘효’자를 보면은 반 그림 반 글씨, 그림은 하나의 우화를 뜻해요. 물고기의 그림은 왕상(王祥)이 효를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큰 병에 걸렸는데 그는 한겨울에 얼음을 깨서 잉어를 잡아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의 효심이 하늘까지 감동을 시켜서 어머니의 병이 기적처럼 나았대요. 아이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8글자를 가르쳐요. 조선시대도 고대중국과 같이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교육을 중요시했어요. 우리의 조상은 평상시에 이런 글자를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새기고 그랬어요.

가이드는 공자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안내사는 전시된 그림 자체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전통조선사회에서 유가사상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안내사 W를 비롯한 모든 안내사는 “삼강오륜” 부분의 그림 앞에서 효자를 설명하는 와빙구리(臥冰求鯉)의 이야기를 구사한다. 가이드는 현대사회의 예시를 들지만 안내사는 오로지 조선시대의 시대배경에서

드러나는 유가사상의 중요성을 관광객에게 알려준다. 중국관광객 중 와빙구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 이 우화를 재미있게 듣는다.

유가사상의 또 하나 중요한 해설대상은 제사다. 가이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사를 해설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대부분 현대사회에서 제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지를 관광객에게 설명하려고 한다. 이는 효를 비롯한 유가사상이 한국현대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안내사는 전시된 불천위(不遷位) 제사상을 설명하였다. 특히 가이드의 설명처럼 “제사가 힘들다”는 담론에 따르지 않고 불천위 제사가 당시 조선시대에서 대단한 의례였던 점을 강조한다.



[그림 IV-5] 제사상

[사례 IV-17] 안내사 S/참여관찰/2016.04.29

안내사 S: 이것은 현재 해마다 한 번씩 하는 불천위(不遷位) 제사입니다. 불천위 제사가 뭘까요? 천위, 불천위, 율기냐의 뜻이죠. 아까 사당에서 얘기하듯이 원래 우리는 4대 조상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예외로 조선시대는 국가에 중대한 공헌이 많은 사람에게 불천위 제사를 허락해 줬어요. 영원히 후대의 제사를 받는 거죠.

관광객: 오!- 그럼 사당에 위패는 어떻게 다시 배치해요?

안내사 S: 제가 들은 바는 임시적인 위치에서 불천위의 위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 518년 동안 국가가 불천위 제사를 내린 사람은 10-20여 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고 바쁘겠죠? 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에게 집에서 불천위 조상의 제사상을 차린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집의 특징은 뭘까요? 2번째 줄 중간에 김정색 음식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소천엽이에요. 제사할 때는 지역과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제사 음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에서 이것을 가례(家家禮)라고 불러요.[...]

중국관광객에게 제사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천위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을 뿐이다. 안내사 S는 불천위 제사의 특성과 관련된 시대상황을 관광객에게 가르쳐 주었다. 불천위를 통해서 효뿐만 아니라 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위의 분석을 보면, 제3전시실에서 전시된 내용이 무형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따라 문화중개자는 각자 상이한 스토리텔링을 구사해 전시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상이한 스토리텔링은 서술하는 층위와 주목하는 시대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았다. 우선, 제3전시실에서 전시된 한국인의 일생은 가이드의 해설에서는 현대사회 한국인의 일생에 해당되고 안내사에게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토리텔링할 때 가이드는 자신의 경험과 현대사회의 양상에 주목하는데, 안내사는 전시된 바에 충실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객관적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중국과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스토리를 짠다. 특히 제3전시실의 중심이념인 유가사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접근에서는 이처럼 현대와 전통으로 나뉘어진 해설 방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제3전시실을 중심으로 해설하는 이유는 공간의 접근성과 역사의 상대적인 부재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두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문화현상에 대한 충돌되지 않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 두 문화중개자의 공통점은 전시에 관해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문화중개자가 중국관광객의 한국사회 및 한국인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보완해주는 전략이다.

3. 중국관광객의 타협 및 진정성 경험

킹(King)은 박물관에서 진정성은 행위주체가 항상 하나의 전략으로 관객들에게 문화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King 2006:7). 문화중개자가 제3전시실에서 표출하는 의미로서 스토리텔링은 중국관광객과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략이자 중국관광객의 진정성 경험을 변화시키는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중국관광객과 문화중개자간의 타협은 역사사실에 관한 지식을 둘러싸고는 실패했지만 무형적인 문화현상의 의미를 획득하는 데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대의 투사와 연상된 과거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한류 콘텐츠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시와 문화중개자를 통해서 향수를 느끼는 것이다.

1) 한류 콘텐츠 진정성의 확인

박물관에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은 소위 한류라는 단어로부터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람이 많다. 김씨(한국인 가이드, 남)에 따르면, 관광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동기이다. 한국인이 중국관광을 갈 때 넓은 경관을 보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가계, 계림 등 중국 서남쪽 관광지에 가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에 오는 중국관광객에게는 한류, 드라마, 성형 등의 키워드가 관광의 동기로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민속박물관에서 투어를 하면서 중국관광객이 늘 갖고 있는 호기심은 “과연 한국인이 정말로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살아 왔는가?” 혹은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이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중개자와 상호작용 속에서 한류콘텐츠에 대해 많이 반응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중개자 또한 자신의 해설 콘텐츠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 사건, 문화현상 등을 언급한다. 한류 콘텐츠의 언급은 다른 전시실에서도 나타나지만 무형적인 문화를 많이 전시한 제3전시실에서 주로 일어난다. 제3

전시실은 장면 재현을 하기 위해 마네킹을 많이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극에서부터 현대극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문화중개자는 제3전시실의 이런 특징을 살려서 자신의 시나리오에 한류 콘텐츠를 적절히 포함시킨다.

[사례 IV-18] 김씨 한국인 가이드 남/심층면담/2016.03.17

상대적으로 경복궁에 가는데 해설하는 데에 있어서 손님들이 진짜 안 들어,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오는 손님은 보통 드라마를 보고 왔는데 그게 놀라운 게 그냥 젊은 세대가 아니라 윗세대도 마찬가지예요. 3관을 설명해 주면 여러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니까 재밌고 관심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사례 IV-19] 김씨 한국인 가이드 남/심층면담/2016.07.07.

그리고 중국인이 생각하는 한국대남자주의는 사실상 유교문화 때문이에요. 한국의 남존여비의 사회라 부모의 재산은 모두 장자에게 주고, 그래서 장자는 부모의 제사를 책임을 져요. 그럼 손님들이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낮설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 드라마에서 봤었으니까. 진짜예요. 간단해요. 드라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향을 끼쳐요.

김씨(한국인 가이드, 남)에 따르면, 중국관광객은 세대와 상관없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과 동기도 한류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3전시실로 해설의 중심을 잡는 것은 이런 한류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한류콘텐츠와 대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중요 이념인 유가사상을 설명할 때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장면과 연결시켜 입증하는 식으로 하면 관광객에게 신빙성과 진정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광객이 즉시 반응하고 자신의 말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자신의 해설에 이러한 내용의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주장한다.

[사례 IV-20] 이씨 조선족 가이드 여/심층면담/2016.06.21

손님들이 여기 오기 전에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한국의 중남경녀(남존여비)의 사상을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연속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까 싶어요. 관광객의 반응은 중국이 옛날에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국도 빨리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막 장난으로 말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산동성 빼고 중국의 다른 도시는 [유가사상에 대한 집착이]이미 많이 나아졌어요[...]

이씨(조선족 가이드, 여, 26세)에 따르면, 제사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제일 궁금한 점은 과연 자신이 드라마에서 봤던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가이다. 그녀는 자신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 관광객의 배경지식과 자신의 해설 간 연속성을 보여주기를 강조한다. 이런 연속성은 드라마에서 봤던 것을 현실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광객이 전시에 대해 가지는 기대라고도 볼 수 있다.

한류 콘텐츠를 연상함과 동시에 중국관광객은 남존여비라는 사상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사회의 과거와 조선시대를 비교한 결과이며, 한류 콘텐츠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 측면과 자사회의 과거 문화에 대한 회상 및 대조가 함께 드러난다.

안내사는 가이드처럼 한류 콘텐츠를 해설 시나리오에 신지 않지만 중국관광객의 드라마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한류 콘텐츠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준다. 한류 콘텐츠의 언급에 대해 안내사는 진정성의 파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관광객의 이해를 돕는 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한류 콘텐츠의 진정성 확인뿐만 아니라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중국관광객은 자문화에 대한 향수(nostalgia)를 느끼며, 과거에 대한 연상한다. 왕은 진정성 경험에 낭만과 향수가 동시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진정성의 경험은 일시적이고 상징적일지라도,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 등을 떠올리게 하고 일상보다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한 자신을 찾게 한다(왕 1999: 360). 장호와 서태양은 향수가 왕이 말하는 개인적 측면의 기억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집단 기억을 자극하고 의미화 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장호•서태양 2014: 202). 말하자면, 여기서 중국관광객은 문화중개자가 제시한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나 한국사회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유가사상과 전통풍속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사회가 상실한 의례나 기타 의미 있는 문화현상에 대해 애석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관광객은 문화중개자의 해설을 들으며 관광대상에 그 자체에 대한 진정성을 따지기 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다.

[사례 IV-21] 북경 부부 중국관광객/비공식 면담/2016.05.25

연구자: 한 바퀴 관람했는데 박물관에 특별히 인상깊었던 것 없나요?

관광객(남): 1, 2관은 좀 크고 물품도 많고 많이 이해하지 못한 면도 있는데 3관은 중국민속과 가까운 것 같아요. 실은 중국과 별 차이 안 난 것 같기도 해요.

관광객(여): 그렇지만 한국인은 의례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풍속의 전승과 보존에 신경 더 쓰는 것 같아요. 이런 풍속들은 국내에서 들어본 적 혹은 본적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예컨대, 대가족 식구들끼리 하는 의례들은 중국에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온 가족이 영광스러운 느낌이에요.[...]

위 사례의 북경 부부는 북경 현지인이 아니고, 북경에 이주하고 1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고향(농촌)에서 봤던 전통풍속 활동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안내사의 해설을 통해서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던 중국의 유사한 풍속들이 떠올랐다. 그에 따르면, 풍속의 내용과 형식이 제3전시실에서 전시한 것과 비슷했지만 중국에서는 도시화 과정을 거쳐 이미 보기 힘들고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이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보존되는 모습에 감탄한다. 특히 의례 부분은 중국에서 많이 간소화된 경향이 강하지만, 제3전시실에서 안내사의 스토리텔링에 따라 한국에서 의례를 거행하는 절차와 의례의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 IV-22] 고씨 중국관광객 남 30대/비공식 면담/2016.05.02

연구자: 아까 3관에 대한 해설을 들었는데 느낀 점이 뭐가 있어요?

정: 전반적으로 좋죠.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듣다가 우리와 매우 흡사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너무 커요. 곳곳마다의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컨대, 무당에 대한 설명할 때 동북지역은 확실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상하이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죠. 예전에는 있었죠. 상하이는 많은 민속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없어졌었죠. 서양문화가 들어오면서 금융대도시로 급속히 변화하고... 절강성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 주도시잖아요. 사람들은 점차 원주민이 갖고 있는 풍속과 문화를 점점보전하지 않았어요. 동북지역도 시내에 나가면 뭔가 없죠. 하지만 농촌은 아직 보존하는 민속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씨(중국관광객, 남)는 상하이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이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과 같이 한국에 여행하러 왔다. 북경 부부와 비슷하게 고씨도 안내사의 스토리텔링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잊어버린 것에 대해 향수를 느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중에 많은 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는 도대신의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 제신 활동이 이미 많이 사라진 동시에 무당과 비슷한 존재인 사람들은 점차 중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어렵고 사회담론에서도 미신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무당이 아직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면서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하며 보전된다는 사실에 감탄하였다.

[사례 IV-23] 송씨 중국관광객 여 30/심층면담/2016.03.24

3관은 모든 사람이 지내야 하는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라 좀 감동을 받았어요. 중국은 이 점에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남긴 것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물건이 많아서 문제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아까워해요. 그리고 중국의 대다수 박물관은 거의 기이한 보물을 소장하는 것처럼 박물관을 기획해요. 젊은이들이 더욱 예전의 풍속에 대해 몰라요. 상하이의 경우는 우리 엄마 세대도 잘 몰라요 할머니 따라서 제사 지내요.

[사례 IV-24] 문씨 중국관광객 남/비공식 면담/2016.03.21

중국인이 소중히 생각하지 않은 것을 한국인들이 다 일일이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점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나한테 감동을 주었어요.

송씨(중국관광객, 여)는 고씨(중국관광객, 남)와 같이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두 사람이 각각 대도시에서 전통풍속이 사라졌다는 것을 걱정했지만 고씨(중국관광객, 남)는 외래문화의 침략 영향을 이유로 삼는데 비해 송씨(중국관광객, 여)는 중국 박물관이 이러한 풍속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에서 주요 박물관은 계속 역사, 전쟁, 고고학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민속을 보존하는 데에 있어선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적인 박물관이 없고 대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이런 자신의 삶과 가까울 수 있는 의례나 풍속의 가치를 못 느끼며, 그것을 복구하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의 풍속을 똑같이 보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는 제1, 2전시실처럼 유물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제3전시실처럼 자신의 삶과 가까운 것들이 중요한 전시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에 그녀는 제3전시실이 전시한 주제와 전시방식이 자국정부와 국민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아 거의 잃어버린 것에 상응하는 소중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문씨(중국관광객, 남)는 가이드의 해설을 듣는 도중에 연구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단체관광객이다. 그는 가이드의 경험을 들으며 현대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전통의례와 풍속과 관련된 것들이 섬세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상깊게 느꼈다. 또한 자신이 사업 파트너로 알고 지낸 한국인에게서 받은 인상과 대조하면서 가이드의 스토리텔링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였다.

요컨대,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중국관광객은 민속박물관에서 인생의례 혹은 민간풍속 등을 빠짐없이 전시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느끼고 진정성을 확인했다. 제3전시실에서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중국관광객은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았고 자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풍속이나 의례 등에 대해 아쉽다는 마음을 품었다.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은 제3전시실에서 중국관광객과 충돌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그들은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에 공감을 하거나 자문화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 이는 관광대상을 통한 연상 및 자신의 경험이 결합되어 생기는 진정성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 경험은 관광객을 만족시키며, 유물의 역사적 사실 등을 따지기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스토리텔링을 수용하고 있다. 이로써 문화중개자와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박물관 관광에서 전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 가이드, 박물관 중국어 전담 안내사와 중국관광객 간 갈등과 타협에 주목하여, 이들의 진정성 경험을 살펴보았다. 특히 전시 자체에서 나오는 전시와 피전시자 간 진정성 문제가 아니라, 전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행위주체 사이의 진정성 분쟁에 초점을 맞췄다. 본 논문은 박물관이라는 하나의 접촉지대에서 각 행위주체가 평등한 권력 하에 서로 지식과 입장의 차이로 충돌하고 문화중개자의 의미 중심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타협하며 관광객의 진정성 경험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본론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민속박물관이 관광의 장이 된 원인 및 전시내용을 밝히고, 각각의 행위주체를 소개하였다. III장에서는 각각 행위주체가 전시에 대한 이해와 수용 과정에서 보이는 관점 차이를 분석하면서, 전시내용을 전달하는 측(문화중개자)과 받아들이는 측(중국관광객)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갈등형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IV장에서는 문화중개자의 전략을 통해서 각 행위주체가 서로 타협을 이루고 진정성 경험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민속박물관은 유적지(경복궁) 옆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이고 그것의 발전역사가 경복궁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관광의 장이다. 민속박물관은 방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과 활기를 보여주었다. 중국관광객에게 민속박물관은 경복궁과 일부분이 될 만큼 연계성이 좋고 경복궁과 함께 한국관광의 상징이 되었다. 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생활사”, “한국인의 일상” 및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3개의 실내상설전시장이 완비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기 보다 관광행위주체들에게 “시간 때우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많은 중국관광객은 전시물 관람보다 편리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박물관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취하였다. 박물관의 공간이용은 여행사 및 관광시장과 큰 연관이 있다. 우선, 박물관을 관광의 장으로 볼 때 첫 번째 주요 인물은 여행사 중국어 가이드였다. 중국어 가이드업은 초기 한국 화교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조선족이 주

로 차지하는 시장이 되었다. 민속박물관에 오는 여행사 가이드도 대부분이 조선족인데, 이들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선후배의 전수와 독학을 통해 습득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박물관에서 해설하는 내용은 박물관을 비롯한 공식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2006년에는 가이드의 정확하지 않은 해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박물관과 궁에 중국어 전담 안내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서 실행하였다. 안내사는 중국관광객에게 해설하는 업무를 맡아 정기해설과 예약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해설은 중국 개인관광객을 위한 것이고 예약제는 가이드의 인솔단체를 박물관에서 대신 인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이드와 안내사는 박물관에서 공존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는 업무내외의 시간에 가이드와 접촉한다. 그렇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 가이드는 업무 외의 시간에 안내사의 해설을 들으러 오지만 안내사의 설명을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채택하고 참고한다. 이러한 해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서로 박물관에서 마주칠 때 진정성에 관한 상충이 불가피하였다.

접촉지대에서 문화중개자는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동시에 각자 중국관광객과 상충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관광객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문화중개자가 보여주는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가이드는 관광객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설하는 과정에서 안내사를 비롯한 한국의 공식적 시선과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무난하게 해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내사는 역사의 진실, 즉 세계사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과 객관적 자료에 의거한 것을 강조한다. 이는 중국관광객의 생각과 부딪치고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의식으로 인한 상충은 문화중개자 대 중국관광객의 갈등이 아니라, 안내사 대 ‘가이드와 중국관광객’의 구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관광객이 자민족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비교와 질문 행위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역사문화의식과 관광행위로 인한 충돌은 주로 보이는 유물 중심의 제1, 2전시실에서 나타난다.

문화중개자는 관광객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제3전시실 중심의 해설 전략을 시도하였다. 제3전시실은 우선 공간적 위치 상 다른 전시실보다 접근하기 편리하며, 국가나 사회라는 거시적이고 무거운 이야기 대신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생여정을 보여준다. 개인의 일상에 관련된 공식적 역사의 부재를 가능성으로 삼아 문화중개자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의미 추구를 더 중요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3전시실은 라이프 그룹이라는 맥락적 전시방식을 활용하여 유물중심이 아니라 무형적인 문화를 재현한다. 이는 개인의 일생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관광객의 전시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타국의 개인에 대한 상상을 표출하게 만들었다. 문화중개자는 제3전시실의 맥락적 전시에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엮는 전략으로 중국관광객에게 의미 중심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제1, 2전시실에서 가이드와 안내사가 상이한 해설을 하는 것처럼 제3전시실에도 두 행위주체는 상이한 해설을 보이지만 상충하진 않았다. 각 문화중개자는 서로 다른 접근의 스토리텔링을 선보이는데, 의미의 구축이라는 여지로써 각자 상충되지는 않는 것이다. 가이드는 지정된 전시의 내용에서 벗어나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겪었던 인생경험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안내사는 문화재현의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질문과 비교 방식을 통해 다른 전시실에서 중국인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다. 이런 과정에서 안내사는 관광객과의 타협을 도모하면서 의미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였다. 특히 문화중개자가 공통적으로 스토리텔링한 내용은 제3전시실의 중심이념인 유가사상이다. 유가사상이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관광객과 공유하는 내용의 출발점으로 삼아 타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유가사상에 대해 스토리텔링할 때도 가이드는 현대사회와 연관짓는 반면 안내사는 조선시대에서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관광객이 제3전시실에서 문화중개자의 해설을 들으며 무형적 문화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획득, 타협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대의 투사와 과거 연상이라는 두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전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한류 콘텐츠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후자는 과거를 연상하면서 자신이 잊어버렸거나 자사회가 잃어버린 문화에 대해 애석해 하

고 향수를 표하는 것이었다. 이때 중국관광객은 전시물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 문화중개자의 스토리텔링이 함축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문화중개자의 의미로서 스토리텔링 전략은 세 행위주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시킴으로써 관광객의 진정성 경험을 변화시킨다.

그렇지만 제3전시실에서 추구, 획득된 상충되지 않는 상이한 진정성은 추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제3전시실에 단체관광객이 폭증하며 국내관광객 및 기타 외국관광객의 관람에 장애를 주고 있고, 박물관 측은 단체관광객이 제3전시실만 관람하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최근에 박물관에서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전시해설 심화과정을 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단체관광객을 다시 제1, 2전시실로 보내 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이드와 안내사 사이의 소통, 그리고 세 행위주체 사이의 배경지식 차이는 여전히 남겨진 문제이다.

본 논문은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로 의의를 갖고 있다. 박물관인류학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는 주제는 전시에 관련된 것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 내부 공간에 서로 작용하는 행위주체에 주목하고자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의 박물관 투어를 분석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오는 국제관광객이 주로 중국관광객으로 구성되어 현지조사에서 다른 외국관광객 혹은 한국 국내관광객을 다룰 만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이점은 향후 조사를 심화할 기회가 생기면 보충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제외한 다른 유적지나 관광명소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비교 연구도 향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원, 2006, “세계화 시대의 민속, 지역전통, 박물관정책”,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 워크샵.
- 권숙인, 2003, “‘유적’에서 ‘생활문화’로: 현대 일본사회에서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개”, 『비교문화연구』 제9집 1호, 3-27.
-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2001.9, 241-268.
- 박은경, 2002, “[연속기획/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구조5-화교] 한국인과 비한국인: 단일 혈통의 신화가 남긴 차별의 논리”, 『당대비평』, 2002.6, 272-287.
- 변찬복, 2012, “관광객 경험의 진정성과 일상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29, 2012.6, 139-164.
- 왕 닝, 2004, 『관광과 근대성』, 서울: 일신사.
- 윤현호·이호, 2013, “양동마을 전통의 구성적 진정성에 대한 에스노그래피”, 『관광학연구』 제37권 제7호, 77-101.
- 이현정, 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63-105.
- 장장식, 2006, “우리 문화 바로 알기-중국어 안내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민속 바로 알기』, 81-101.
- 장호·서태양, 2014, “중국인 관광객의 이(異)문화 인식, 진정성 및 관광체험의 구조적 관계-한국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9(1), 201-223.
- 정명순, 2008,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의무화”, 『한국관광정책』, 2008.3, 74-81.
- 정미영, 2011, “서울 북촌의 문화관광자 원화 연구-북촌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20: 90-115.
- 정익준, 1998, 『(最新)觀光學原論: 여가사회에서의 관광학』, 서울:螢雪출판사.

- 황흥휘, 2006, “민족문화유산의 의미부여 및 그 수용”,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江林, 李祉輝, 2005, “中國公民赴韓旅遊市場分析-以我國六大旅遊熱點城市為例”, 『旅遊學刊』第20卷 第2期.
- 劉厚生, 1993, “滿族的薩滿教是典型的民族宗教”, 東北師大學報 1993年第1期, 44-48.
- 李國強, 2004, “東北工程”與中國東北史的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第14卷 第4期, 1-6.
- Ap, John • Wong, Kevin K.F., 2001, “Case study on tour guiding: professionalism, issues and problems”, *Tourism Management* 22(2001) 551-563.
- Boast, Robin, 2011, Neocolonial collaboration: Museum as Contact Zone Revisited, *Museum Anthropology* Vol 34, issue 1, pp. 56-70.
- Boorstin, Daniel J., 1964,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Chan, Yuk wah, 2006, “Coming of age of the Chinese tourist: The emergence of non-western tourism and host-guest interactions in Vietnam's border tourism”, *Tourist Studies* 6(3): 187-213.
- Chun, Kyung Hyo, 2012, “Postcolonial aspiration and contestation : politics and poetics of nationalist discourses in two national museums of South Kore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Clifford, James,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Erik, 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5, 371-386.
- _____, 2004, *Contemporary Tourism: Diversity and change*, Elsevier Journals.
- _____, 2007, “‘authenticity’ in tourism studies: Apres la lutt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2:2, 75-82.

- Crew, Spencer R and Sims, James E, 1991, "Locating authenticity: Fragments of dialogue" in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DC; Lond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Duncan , F. Cameron, 1971, "The museum, a temple or the forum", *Curator: The museum Journal* Vol 14, issue 1, pp. 11-24.
- Feldman, Jeffrey, 1999, Review: Destination Culture: Tourism, Museums, and Heritage, *Museum Anthropology* Vol 23, issue 1, pp. 59-61.
- Graburn, Nelson, 1977, "The museum and the visitor experience: in *The visitor and the museum*", L.Draper; ed. pp. 3-25; Berkeley: Lowie Museum.
- _____, 1982, Tourism, leisure and museu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Canadian museums association. Halifax. Nova Scotia.
- _____(Zhao hongmei, et al trans.), 2009, *Anthropology and the age of tourism(Chinese edition)*, Guangxi: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den City: Doubleday.
- Isaac, Gwyneira, 2005, "Mediating knowledges: Zuni negotiations for a culturally relevant museum", *Museum Anthropology* 2005. 28, 3-18.
- Jacknis, Ira, 1985, "Franz Boas and exhibits: On the limitations of the museum method of anthropology" in *Objects and Others: Essays o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 75-111.
- Karp, Ivan Lavine, Steven, 1991,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DC; Lond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King, Stephen.A, "Memory, mythmaking, and museums: Constructive authenticity and the primitive blues subjects", Faculty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Paper 13.

Kirshenblatt-Gimblett, Barbara, 1991, "Objects of Ethnography", in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DC; Lond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_____, 1998, *Destination Culture: Tourism, museums, and heritage*,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urin, Richard, 1997, *Reflections of a culture broker: a view from the Smithsonian*, Smithsonian Institution.

MacCannell, Dean,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9, No.3., pp.598–603.

_____,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odlin, Alderman, Centry, 2011, "Tour guides as creators of empathy: the role of affective inequality in Marginalizing the enslaved at plantation house museums", *Tourist Studies* 11(1) 3–19.

Pratt, Mary Louise, 1991, "Art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1991), pp. 33–40.

_____, 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ress, Irwin, 1969, "Ambiguity and Innovation: Implications for the Genesis of the Culture Broker", *American Anthropologist New Series*, Vol. 71, No. 2, pp. 205–217.

Smith, Valene L, Maryann Brent, 1989, "The Culture Broker." *Hosts and Guests Revisited: Tourism Issues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Cognizant Communication Corp. 275–282.

Trilling, 1972, Trilling, L., 1972, *Sincerity and Authentic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Urry, 2009, *The Tourist Gaze(Chinese edition)*, Guangxi: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Wang, Ning,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6, No.2, pp. 349-379.

Wolf, 1956, "Aspects of group relations in a complex society: Mexico", *American Anthropologist* 58: 1005-1078.

법률

2003.01: 관광종사원 의무고용제 폐지, 권고 고용제로 전환. 최종접속일 2016.10.17.

“중국국민출국여행관리방법(中國公民出國旅遊管理方法)”,

<http://www.cnta.gov.cn/ztwz/cjyzt/gltl/201507/t20150708_723264.shtml>, 최종접속일 2016.08.18.

자료

“관련법령”,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http://www.kotga.or.kr/guide/rule.php>>, 최종접속일 2016.08.17.

“연도별통계 1975-2015”, 한국관광공사,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379522&isNotice=true&instanceId=294&rnum=0>>, 최종접속일

2016.11.02.

국립민속박물관, 1996,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도록』, 신유.

국립민속박물관, 1996, 『국립민속박물관 50년사』.

국립민속박물관, 2015년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웹사이트

구오지위: 주역의 이치에 따라 임금의 지위를 이르는 말의 높임말., 네이버

국어사전, 최종접속일 2016.08.24.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설명, <<http://www.nfm.go.kr/Display/firstintro.jsp>>

최종접속일: 2016.09.09.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nfm.go.kr/Introduce/mCondition.jsp>>, 최종접속일

2016.10.10.

“금줄”,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해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0511&cid=42923&categoryId=42923>> 최종접속일: 2016.09.21.

조선사회, 2014.02.24.,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는 경복궁, 일본인은 창덕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4/2014022400100.html>, 최종접속일 2016.08.09.

중주국: 자기 나라에 종속된 다른 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일부를 처리하는 나라.--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644000>> 최종접속일: 2016.09.11.

제3전시관 리모델링

공지<http://www.nfm.go.kr/Inform/ninfor_view.nfm?seq=8462&nowPage=1&searchColumn=&searchWord=> 최종접속일 2016.08.14.

한국관광공사, 2016.06.08., “940만 중국 수험생들이여, 생애 첫 해외여행은 한국으로”,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news/press/board/view.kto?id=426710&isNotice=false&instanceId=42&rnum=15>>, 최종접속일 2016.08.09.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2015.02.25., “1984-2015년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23699&isNotice=true&instanceId=294&rnum=0>>, 최종접속일

2016.08.09.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무자격 중 가이드의 역사왜곡”,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42473.html>〉 최종접속일

최종접속일: 2016.09.10.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審議關於改進工作作風、密切聯繫群眾的有關規定
分析研究二〇一三經濟工作”, 중국공산당뉴스, 2012.12.05.,

〈<http://cpc.people.com.cn/n/2012/1205/c64094-19793530.html>〉,

최종접속일 2016.08.18.

Abstract

Museums as Contact Zones:

Conflicts and Negotiations among Interpreters, Guides and Chinese Tourists in National Folklore Museum

XINYI LI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mainly discusses the conflicts and negotiation among Chinese tourists, museum interpreters and travel guides. It tries to reveal: First, actors' cognitive conflicts and disagreements on expeditis; Second,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authenticity experience of Chinese tourists. The museum is considered as the contact zone, in which travel guides and interpreters (collectively, culture brokers) exist in this space with tourists together. In this restricted space, culture brokers does not satisfy Chinese tourists' view of being the "creator," and in the meantime, compromise to cater to Chinese tourists. Their common knowledge rift and historical self-esteem come into conflict. While culture brokers realise the controversy, they employ a strategy to negotiate with Chinese tourists and help them encounter authenticity experience.

We focus on National Folklore Museum next to Gyeongbokgung Palace, revealing the interactions among travel guides, Chinese tourists and interpreters. Museums next to cultural si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tourism, National Folklore Museum is never an exception. The history of National Folklore Museum is closely correlated to Gyeongbokgung Palace; Because of being geographically near, National Folklore Museum has been an attraction for Chinese tourists, which consists of three exhibition halls: “History of Korean People,” “The Korean way of life,” and “Life cycle of Koreans.” However, tourists do not consider the museum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but a transitional position between Gyeongbokgung Palace and next attraction. The museum is purely “a place to kill time.”

In the museum,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culture brokers and Chinese tourists lead to conflicts of opinions. Firstly, Chinese tourists does not believe interpreters are delivering the “correct knowledge.” Even though travel guides understand the conflicts of opinion between the both sides, they always choose avoidance of conflicts against the tourists. However, museum interpreters take a firm position to historical facts and Korean perspective to World History, and by showing objective exhibits to convince tourists. In addition, questions and comparison of Chinese tourists to Chinese culture also cause conflicts against the culture brokers. Those conflicts mainly happen in first and second exhibition halls, and closely associated with relics. More importantly, conflicts are not provoked between culture brokers and Chinese tourists, but between interpreters and “travel guides and Chinese tourists.”

Realising the controversies, culture brokers try to focus on the third exhibition hall. The third exhibition hall applies the method of storytelling to reveal the “Life circle of Korean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exhibition halls which are relic-centred. Culture brokers start making up unidentical and compatible narration, focusing on the meaning of cultur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me of

the third exhibition hall: Getting rid of the burdensome theme on the patriotism and society, it concentrates on the narration of a Korean's life. Joseonjok guide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ravel guides tells their stories of living as a Korean, yet interpreters centre on exhibits and their differences to Chinese culture. The centre of the stories which culture brokers are telling follows the course of Confucianism which Chinese tourists are very familiar with. The dominating Confucianism in Koreans' daily lives inspires and incites Chinese tourists to rethink many lost tradition and culture during the modernisation and liberalisation of China. Meanwhile, the imag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echoed at the third exhibition hall as well. Chinese tourists understand and accept the stories from the culture brokers, they then use their experience and finally reach the authenticity of both projected expectations and envisagement of their past.

The contact zone in this thesis not only means the inequality between exhibitors and exhibits, but also discloses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the equal actors. The conflicts and negotiation reveals a new direction for Museum Anthropology. Additionally, authenticity indicated by Chinese tourists does not fit into the category defined by Tourism Anthropology. On the contrary, authenticity crosses among many categories. Therefore, we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classifying the authenticity.

keywords : museum tourism, contact zone, culture broker, Chinese tourist, authenticity, conflict, negotiation.

Student Number : 2014-25124

中文摘要

作为接触区域的博物馆：

国立民俗博物馆的讲解员、导游与中国游客之间的矛盾与妥协

李欣苒

人类学系

研究生院

国立首尔大学

这篇论文主要讨论了作为外国人的中国游客、博物馆解说员与旅行社导游在博物馆观光解说的过程中发生冲突与妥协的现象。通过这篇论文，作者意图考察：第一，每个行为者对展览的认识与因此发生的矛盾与纷争；第二，各个行为者之间的妥协过程与中国游客的真实性体验。本论文将博物馆看作一个接触区域，导游与讲解员等文化中介人与游客共存在这个空间内。文化中介人既不是完全迎合中国游客喜好的“创造者”，也不是不能妥协的展览代表人。他们与中国游客在平等的权力下，因自身认知的历史文化差异而产生矛盾。但是当文化中介人意识到矛盾点后，他们也采用了策略与游客达到了妥协的状态并使游客获得了真实性的体验。

本研究以毗邻景福宫的韩国国立民俗博物馆为中心，探讨了来到博物馆的旅行社导游，中国游客与博物馆中文讲解员的相互作用。与文化遗址紧邻的博物馆已然成为现代旅游中的旅游对象场所，国立民俗博物馆也不例外。国立民俗博物馆的发展历史与地理关系无一不与景福宫有着紧密的关系。这也使它成为了中国游客经常来访的旅游胜地。国立民俗博物馆的本馆由“韩民族的生活史”、“韩国人的日常”、“韩国人的一生”三个常设馆组成。然而旅游

行为者们并不单纯地将博物馆作为获取知识的场所，而是将博物馆当成景福宫与下一个景点之间的纽带，和游客“消磨时间的地方”。

参观民俗博物馆的过程中文化中介人与中国游客之间因为历史文化意识的差异而产生冲突。首先，中国游客不承认讲解员追求的“正确的知识”。导游虽掌握着游客与讲解员两方的不同观点，但还是以游客为优先，尽量减少与游客的冲突。换言之，导游在解说过程中尽量避免了讲解员或者其他韩国公众知识所产生异议的内容。与此相反的是，讲解员非常注重历史真实以及韩国对世界史的公共立场，并试图利用一些客观的资料去强调这个观点。这是导致讲解员与中国游客的想法产生冲突的重要原因。另外，中国游客在博物馆内的观览行为（具体是指比较与提问行为）也与文化中介人产生了一些不可避免的冲突。然而这两个方面的冲突大多发生在以“文物”展览为中心的第一与第二展馆。这些矛盾与“可见的”文物有着不可分割的关系，也是从文物中直观地表现出来的知识的矛盾。重要的是，这里的矛盾并不是主要发生在文化中介人与中国游客之间，而是讲解员与“导游和中国游客”之间。

在意识到矛盾点之后，文化中介人为了消除彼此和与游客之间的矛盾，开始尝试以第三展馆为中心的解说方式。比起文物中心的第一、二馆，第三馆的脉络展示法给“讲故事”的叙述方式创造了可能。文化中介人开始编起互不相同但是互不冲突的故事，想把重心放在追求文化的意义上面。这也与第三展馆的主题有关——脱离了国家与社会的繁重主题，轻快地叙述一个人的人生故事。从中国移居过来的朝鲜族导游将叙述的重点放在自己作为“韩国人”的人生经历上，讲解员则比较关注展览内容的客观性与和中国的差异性。这些故事的中心脱离不了中国人熟悉的儒家思想。中国人也发现在韩国人的日常生活中儒家思想是非常容易被察觉的，这使中国游客对于中国现代社会所失去的传统文化有了一番反思的机会。与此同时，韩流中传统文化形象的真实性也在第三展馆内被确认。最后，中国游客积极地理解并接受了文化中介人的故事并结合自己的经验经历了来自观光对象的投射印象与自身过去的联想的真实性体验，三个行为者也达到了妥协。

本研究里运用的接触区域的概念不单单把它看成展示方与被展示对象之间的权力不均衡问题，而是意在表明博物馆空间内拥有对等的权力下行为者

的相互作用。这样的接触区域里产生的冲突与妥协问题提出了今后对作为接触区域的博物馆的人类学研究新方向。另外，中国游客所体验到的真实性也并非如之前的旅游人类学中所探讨的真实性那样有清晰的分类，而是以一种混合的形态展现出来。本论文也再次对是否有必要把真实性做分类运用提出了质疑。

关键词：博物馆旅游，接触区域，文化中介人，中国游客，真实性，矛盾，妥协

学号：2014-25124